

UNESCO ResiliArt debate 연계 온라인 포럼

제5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전환기, 예술지원의 위기진단과 해법모색

2020.10.28 WED 14:00-16:00

포럼 자료집



목차

사회 : 유은선(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1. 발제1 : 권용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
코로나 19, 예술현장의 위기양상과 특징 3-16
 2. 발제2 :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예술지원 정책의 성찰 및 미래 방향 17-26
 3. 패널 토론 및 종합토론 27-52
김대현(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류정식(Ghost LX 디렉터)
성지수(기후정의 창작집단 콜렉티브 텡굴 대표)
전효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정윤희(미술작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부록] 사전 제출 토론문 53-68

진행순서

1. 참석자 등록/입장

2. 개회 및 진행안내

3. 인사말

경과보고

4. 발제1 : 코로나19, 예술현장의 위기양상과 특징 <권용민>

5. 발제2 : 예술지원 정책의 성찰 및 미래 방향 <양혜원>

6. 토론 : 예술지원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과 전략 제안

①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예술지원의 방향

② 기존 방식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③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제안

7. 종합토론

8. 폐회

※ 유튜브 중계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OWGEBs6LSUI&t=55s>

1. 발제1

코로나 19, 예술현장의 위기양상과 특징

권용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

코로나 19, 예술현장의 위기양상과 특징

권용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연구원)

본 발제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에서 진행 중인 연구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집 발간(2020.12) 전, 인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코로나19 현황 및 추이, 그리고 질문들
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3. 코로나19 대응 사례
4. 논의 과제 제안 : 코로나19 위기 양상 및 특징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코로나19 현황 및 추이, 그리고 질문들

초기발생 (1.20~ 2.17)	사회적 거리두기 (2.23~3.2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22~5.05)	생활방역전환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5.6~8.12)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8.13~10.11)	거리 두기 1단계
-------------------------	----------------------------	--------------------------------	--	-----------------------------------	-----------------



총 확진자 25,575명
(보건복지부 2020.10.19. 기준)

- 코로나19 이후 예술계의 **현황(피해)와 미래 인식에 대한 변화양상**은?
- 코로나19 이후 **대응(공공 & 민간)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한계 및 향후 방향**은?

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조사개요

연구문제

-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
→ 현황과 영향, 그리고 대응
-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 미래 변화 인식과 대응

조사내용

-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2018~2020 상반기)
- 코로나19 예술인 인식조사
- 코로나19 관람객 인식조사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례조사
-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헌조사

-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의 양상** 파악
- 코로나19의 영향 **대응의 의의와 한계, 미래 방향** 모색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 그리고 예술지원정책 방향** 모색

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문화예술분야 활동 감소 현황

공연건수 변화 추이(서울+대구)



※ 점선은 신규 확진자 수 발생 추이

전시건수 변화 추이(서울+대구)



※ 점선은 신규 확진자 수 발생 추이

-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3월 이후 공연, 전시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91.0%**, **55.0%** 감소
- 이후 감소세는 줄어들고 있으나 8월 이후 재확산으로 문화예술활동 급감 예상

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문화예술분야 활동 감소 현황

코로나19 중지/취소 피해 여부(고용주 등 대상)



코로나19 중지/취소 피해 여부(고용된 예술인 대상)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문화예술활동 변화 현황(관람객)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문화예술활동 감소 이유(관람객)



자료출처 : 양혜원 외(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12월 초 발간 예정).

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문화예술분야 활동 감소 현황(시설운영주체별)

코로나19 전·후 운영주체별 공연 건수 변화



코로나19 전·후 운영주체별 전시 건수 변화



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피해 및 대응양상

경제적 피해양상(중복응답)



경제적 피해 대응 양상(중복응답)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대체로 공연/전시, 행사의 취소/연기로부터 기인
-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예·적금 해지, 개인 부채 등의 **자구적 노력**도 상당 부분 확인됨

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피해 및 대응양상

예술활동 피해양상(중복응답)



예술활동 대응 양상(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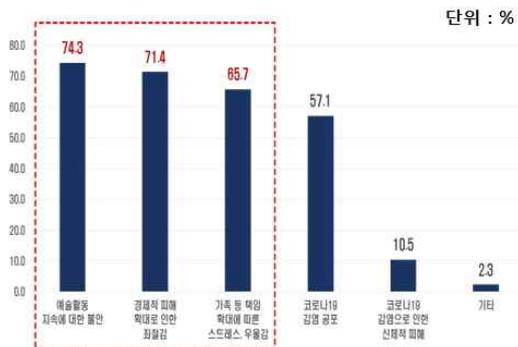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하여 **관객 및 예술인과 소통이 단절된 것**을 가장 큰 피해로 인식
-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소통 및 유통 방식을 고민**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9

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피해 및 대응양상

신체적·심리적 피해양상(중복응답)



신체적·심리적 대응 양상(중복응답)



-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지속에 대한 불안, 경제적 피해로 인한 좌절감, 스트레스** 등을 가장 큰 신체적·심리적 피해로 인식
- 신체적·심리적 피해에 대해 **상담, 약물 치료**도 일부 시도 하고 있음이 나타남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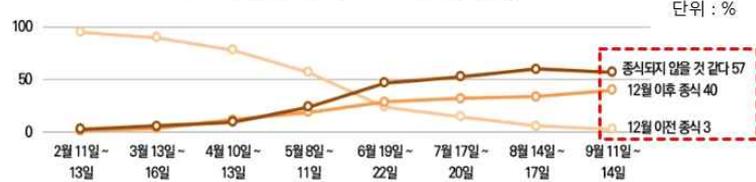
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종식시기 예측

코로나19 종식시기 예측(예술인)
단위 : %



코로나19 종식시기 예측(국민)
단위 : %



자료출처 : 한국리서치(2020), 여론속의 여론, 기획: 코로나19 16차 인식조사(상황인식, 공적주체 신뢰도 등),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96-2호).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with corona', 엔데믹 등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옴에 따라 종식시기를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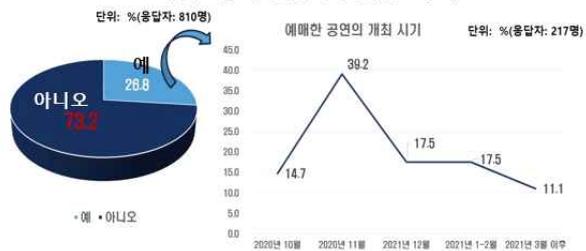
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종식 이후 예술활동 재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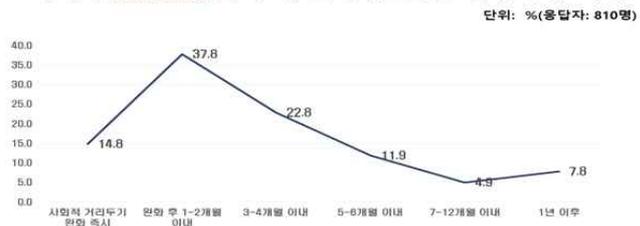
코로나19 종식 시, 예술활동 재개 시기(예술인)
단위 : %



향후 있을 문화예술활동 티켓 예매 현황 및 관람 시기
단위: %(응답자: 810명)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문화예술활동 예매 재개 시기
단위: %(응답자: 810명)



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변화 인식

단위 : %, 점

문항	매우 부정	보통					매우 긍정	모름	평균
		←				→			
1. 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2.3	1.7	3.1	10.5	16.5	28.3	25.5	12.2	5.55
2. 경제불황으로 고용 불안이 심화될 것이다.	0.2	1.7	2.9	5.5	13.7	31.7	41.2	3.1	6.00
3.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1.1	2.5	5.1	10.0	19.2	27.5	26.8	7.8	5.53
4. 의료가 치료 중심에서 예방/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	0.2	1.4	2.2	11.2	17.1	33.5	30.8	3.7	5.78
5.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로 우울감 등 심리적 문제가 증가할 것이다.	0.5	1.7	3.2	8.8	20.5	29.2	32.3	3.8	5.75
6. 비대면 증가로 개인주의가 확대되고 주관적 만족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1.7	1.8	4	8.9	18	30.2	30.9	4.5	5.66
7. 비대면 증가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화(가족주의, 집단주의)가 바뀔 것이다.	0.5	3.7	4.5	10.3	16.2	30.6	30.3	4	5.62
8.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1.1	1.7	4.3	8	19.1	29.7	29.8	6.3	5.68
9.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수도권 인구집중이 완화될 것이다.	7.4	8.3	9.2	18.8	18.2	18.9	13.4	5.8	4.51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은 **고용불안의 심화, 예방/건강관리 중심으로의 의료체계 변화, 심리적 문제 증가, 새로운 기술 도입의 가속화** 등의 순으로 높은 평균 인식 점수를 보임

13

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분야 변화 인식

단위 : %, 점

문항	매우 부정	보통					매우 긍정	모름	평균
		←				→			
1. 문화예술분야에서 정부 역할이 더욱 확대·강화될 것이다.	5.5	5.7	7.5	14.2	18.9	22.8	19.5	5.8	4.93
2. 문화활동 시 개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다.	1.2	1.7	2.3	6.6	16.0	31.7	37.4	3.1	5.88
3.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활동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활발해질 것이다.	4.9	6.6	9.7	15.7	18.2	20.6	18.2	6.2	4.81
4. 사회의 심리적 문제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활동이 확대될 것이다.	4.9	5.1	8.6	12.9	20.3	22.8	19.1	6.3	4.96
5. 온라인(비대면)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이 확대될 것이다.	2.0	3.1	4.0	8.5	19.4	28.5	30	4.6	5.57
6. 온라인(비대면) 활용 능력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다.	1.5	1.1	2.3	6.8	14.6	28.2	38.9	6.6	5.91
7.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10.6	11.5	12.6	19.5	15.2	13.2	10.9	6.3	4.07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분야 변화에 대한 인식은 **온라인 활용 능력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양극화, 문화활동 시 개인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확대** 등의 순으로 높은 평균 인식점수를 보임

14

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대응

사회변화 속도에 대한 체감(예술인)

단위 : %, 점

	체감 어려움	보통	매우 빠르게 변화	평균 (7점)
전체	2.3	5.1	92.6	5.78
20대	5.0	3.3	91.7	5.67
30대	1.0	5.7	93.3	5.87
40대	2.1	4.9	93.0	5.85
50대	2.9	4.4	92.6	5.77
60대 이상	2.9	5.9	91.2	5.59
문학	2.2	5.5	92.3	5.67
시각	3.1	3.1	93.8	5.81
연극	0.8	4.7	94.5	5.80
무용	0.0	7.3	92.7	5.98
음악	2.7	5.4	91.9	5.86
전통	1.8	7.0	91.2	5.88
뮤지컬	0.0	0.0	100.0	6.08
다원	0.0	2.9	97.1	6.00
기타	4.8	0.0	95.2	5.57

사회변화에 대한 준비 여부(예술인)

단위 : %

	예	아니오
전체	60.0	40.0
20대	63.3	36.7
30대	61.4	38.6
40대	56.3	43.7
50대	61.8	38.2
60대 이상	57.8	42.2
문학	53.8	46.2
시각	60.2	39.8
연극	63.0	37.0
무용	73.2	26.8
음악	66.2	33.8
전통	59.6	40.4
뮤지컬	75.0	25.0
다원	70.6	29.4
기타	76.2	23.8

- 포스트 코로나 사회변화 속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6%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
- 사회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0.0%로 나타남

15

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온라인 기반 예술활동 인식 및 대응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경험(예술인)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플랫폼(예술인)



자료출처 : 양혜원 외(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12월 초 발간 예정).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경험(관람객)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플랫폼(관람객)



16

2.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온라인 기반 예술활동 인식 및 대응

향후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의향(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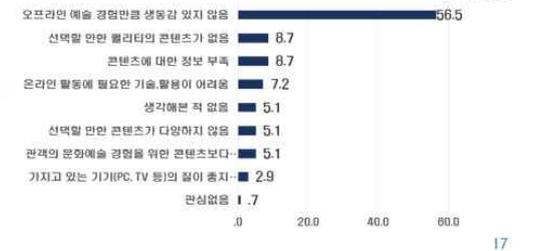
온라인 예술창작 및 유통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향후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의향(관람객)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의향이 없는 이유(관람객)



3. 코로나19 대응사례

국내 문화예술분야 지원 사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Art Change Up) **창작활동** 연실향 생중계 **판로**
- 코로나19 피해 소극장 지원 **경상비** 전시공간 긴급지원 **경상비** 연장 대관료 지원 **경상비**
- 공공미술 공모사업 **창작활동** 코로나19 긴급 모금 프로젝트 **창작활동**
-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일자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용자 **유동성**
-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코로나19 피해 가점) **창작활동**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코로나19 대응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지원 **창작활동**

예술경영지원센터

- 공연 관람료 지원 **판로** 미술 전시 관람료 지원 **판로** 슬픔 대여 지원 공모 **판로**
- 코로나19 대응 전담창구 운영 **컨설팅**

kc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지원 **일자리**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 코로나19 피해 공예패키지 지원 **경상비**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K-Music 시즌' 코로나19 극복 긴급 대중음악공연 지원 **경상비**

- 창작활동 유지를 위한 지원금, 경상비, 일자리 지원에 집중
- 판로지원 측면에서 수요진작을 위한 관람료 지원, 온라인 및 실황 중계 지원

3. 코로나19 대응사례

국내 문화예술분야 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대관료 지원 공연예술 초연재공연 지원 공연 온라인 생중계 지원 공연예술특성화극장 운영 청년예술가 지원 전시공간 긴급지원 문예기금 집행 인성범위 확대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소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창작준비금 지원(창작디딤돌), 심리상담 지원대상 확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 판촉행사 실시, 공예 포장상자 무상보급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 예술강사 원격수업 지원,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 지원,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 관람료 지원,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 [기타]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고용노동부),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 구축(www.artnuri.or.kr)-운영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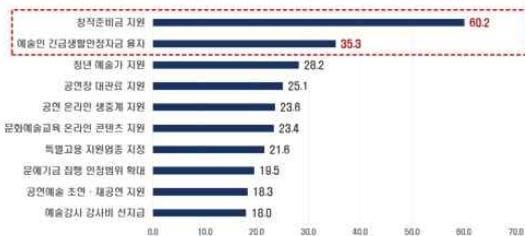
지원 사업 미신청 이유(중복응답, 상위 10위)



3. 코로나19 대응사례

국내 문화예술분야 지원에 대한 인식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중복응답, 상위 10위)



향후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중복응답, 상위 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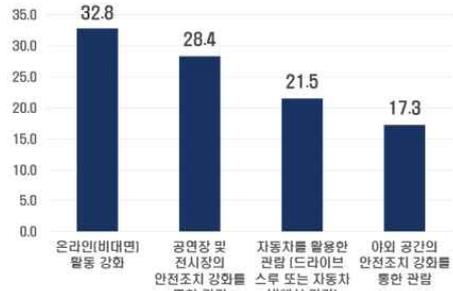
3. 코로나19 대응사례

관람객의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 공간 방문을 결정하는 상황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시, 문화예술활동 방식에 대한 인식



공연장에서의 감염 확산 방지대책의 중요도 인식

순위	대책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평균
5순위	가족석 판매(일행 단위로 좌석 거리두기)	4.2	11.5	84.3	5.54
	시간대별 총 관람객 수 제한	4.0	10.6	85.4	5.68
4순위	행사 참여자(아티스트, 스태프 등)가 안전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4.8	14.1	81.1	5.56
	공간 방역계획 및 현황 정보 제공	2.3	10.0	87.7	5.80
3순위	행사장소 내 거리두기	3.3	7.4	89.3	5.89
	중간(인터미션) 휴식없이 공연시간 단축	17.3	22.7	60.0	4.79
2순위	비대면(온라인) 예매 및 티켓발권 시스템 운영	5.1	11.7	83.2	5.54
	공연장 좌석에 칸막이 설치	9.1	15.2	75.7	5.35
1순위	재온측정 및 손소독제 배치	3.3	9.4	87.3	5.92
	모든 관객, 스태프 마스크 착용	2.7	6.9	90.4	6.13
6순위	(관객이 물리지 않게) 대기시간 조정	3.2	9.4	87.4	5.80
	자기 차량 이용 장려	8.1	18.6	73.2	5.33
	방역기준 설정/준수를 알리는 안전마크 부착	3.2	14.4	82.3	5.64

3. 코로나19 대응사례

해외정책 사례 조사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활동

활동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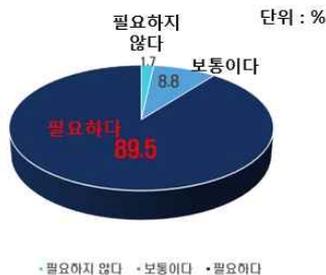
- 토론회 개최, 연대 캠페인, 선언문 발표 형식

예) UNESCO 넥스트 노멀(The Next Normal) 캠페인, 레질리아트(ResiliArt) 운동, American for the Arts "예술이 희망을 만듭니다(#ArtsCreateHope)" 캠페인 등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영감을 주고, 달라고, 나누는 것, 이것이 예술의 힘이며,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동안 그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 UNESCO Azoulay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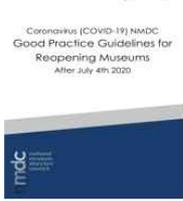
※ 참고 : 재난시 문화예술활동 경험 기회 확대 필요성, 문화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식(관람객)



3. 코로나19 대응사례

해외정책 사례 조사

코로나19(항후 재난) 대응 체계

대응정책 다각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응 가이드 마련
<p>지원 대상 및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랜서 수입지원, 고용예술가 급여지원, 담보 대출, 기관·단체 지원 등 <p>코로나19 기간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긴급 지원 +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중장기 지원 예) 독일 코로나19 대응 €10억(약 1조 3천억원) 지원 '문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2020~2021) 등 신설 <p>위기단계별 대응체계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ACE 3단계 대응 방안 대응>안정화>적응 	<p>중앙주도 위기대응 협력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DCMS 장관 중심 문화예산TF및8개실무그룹조직운영 - 코로나19 대응 폐쇄된 기업과 장소들이 안전하게 재개될 수 있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창조산업 분야 정부 청사진 및 지침 마련 목표 	<p>중앙 방역지침 연계 예술현장 대응 가이드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전시, 공연장 환경조성 가이드 수립 - 규제 완화 수준 단계, 다음단계 이동 기준/수준 명시된 명확한 계획 - 예술 분야별 맞춤형 가이드 수립 → 위기단계별 지속적 대책 강구 

3. 코로나19 대응사례

해외정책 사례 조사

미래 정책 방향 모색

차세대 수요 대응	근거기반정책 설계위한연구 · 조사진행
<p>뉴노멀 시대 신규 지원사업 발굴·지원을 통한 차세대 수요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기술·플랫폼(온라인 포함) 활용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 독일 '디지털 프로젝트' 신규 지원 (€1.5억, 약 2천억원) 예) 영국 'Culture is Digital(2018~)' 정책 일환 예술분야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교육 제공 'Digital Culture Network' 운영(2019~2020) ACE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지원사업 일환으로 게시' <p>코로나19 기간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기술·플랫폼 활용 문화예술 창작 협력·교류 지원 예) EU 유럽 공연예술작품 국경 간 배포 플랫폼 지원사업(약 34억원) 등 다수 	<p>코로나19 현황 진단 및 근거기반 정책설계를 위한 연구·조사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 분야 영향 및 파급효과 평가·분석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 미래 방향 예측 및 정책설계를 위한 연구·조사 → 근거기반 정책대응, 환류 초석 제공 예) OECD 문화창조산업분야 코로나19 대응 정책보고서, American for the Arts '코로나19 영향 설문조사', 영국·북아일랜드 예술위 관객 예술활동 참여의향 조사 등 다수 

4. 논의 과제 제안

코로나19 위기 양상 및 특징 조사 결과 종합

주요 조사 결과

현황 및 피해 양상

- 공연, 전시, 행사 등 취소/연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 외 다른 형태의 피해 양상 확인

코로나19 대응

- 공공 부문은 지원금, 경상비, 일자리, 판로 지원에 집중
- 창작지원금, 융자지원 등에 대한 선호 높고, 향후 확대 희망
- 예술가 개인은 정부 지원금 외 개인 부채를 통해 경제적 피해 대응
- 예술활동에 대한 피해를 새로운 소통, 유통 방식의 모색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경향
- 신체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약물 치료 대응 일부 확인
- 정부 대응에 대한 한계로 사업에 대한 정보 획득 어려움, 절차의 복잡성, 자격 요건 까다로움 등이 나타남

미래 대응

-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
- 개인 안전, 예술의 역할 및 사회적 가치 확대 기대, 온라인 예술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25

4. 논의 과제 제안

코로나19 위기 양상 및 특징 조사 결과 종합

코로나19와 미래 대응을 위한 논의 주제 발굴

코로나19와 유사 재난에 대한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 드러난 예술지원정책의 한계는 무엇이며,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코로나19 이후 미래에 대한 준비는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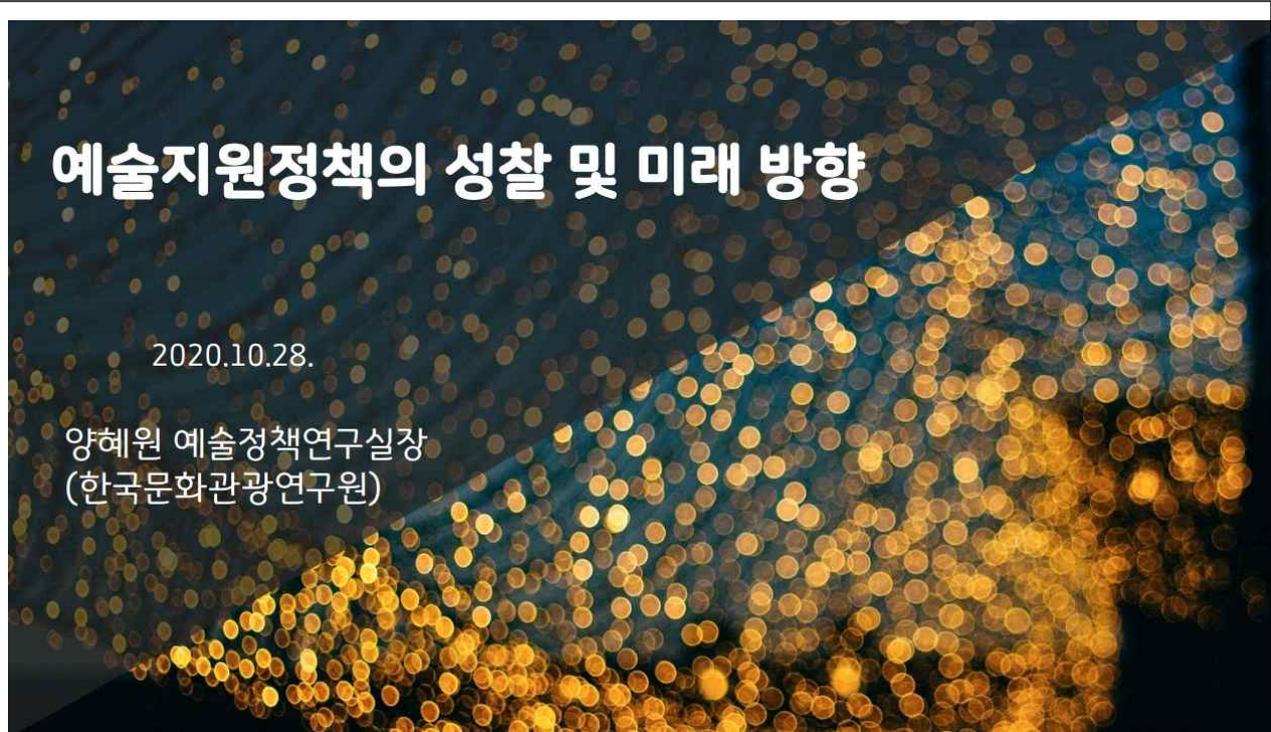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2. 발제2

예술지원 정책의 성찰 및 미래 방향

양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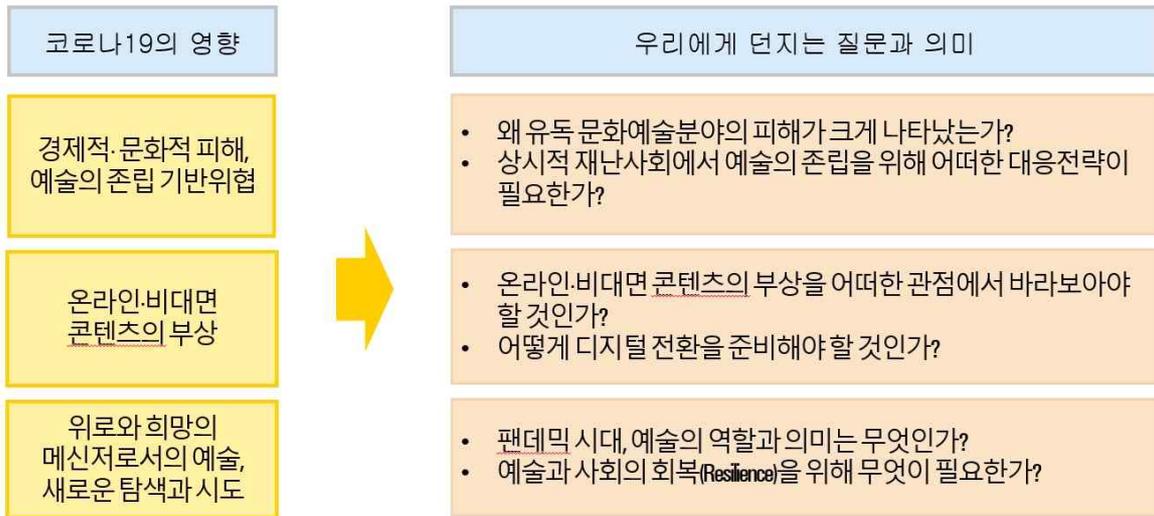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 논의의 순서

- I 들어가며
- II 코로나19가 드러낸 문화예술분야의 취약성
- III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의 부상을 바라보는 관점
- IV 팬데믹 시대 예술의 의미, 그리고 새로운 시도와 모색
- V 코로나19 대응 예술지원정책의 성찰
- VI 코로나19 이후 예술지원정책의 미래 방향

I. 들어가며: 코로나19가 미친 영향과 그 의미



II. 코로나19가 드러낸 문화예술분야의 취약성

✓ 왜 문화예술분야가 더 큰 타격을 받았는가?

- 예술분야의 특성: 관객과의 직접적 대면을 통한 상호교감이 핵심, 노동집약적 특성
 - 문화시설 중심의 유통구조
 - 수익구조: 밀폐된 장소에 최대한 관객을 동원해야 비용 보전 가능
 - 장기간의 준비과정 : 몇 일 간의 공연, 전시, 아트페어와 축제를 위해 1년 이상을 준비
 - 높은 공공의존도
 - 문화예술분야의 영세성, 열악한 소득수준
 - 프리랜서가 많아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에서 배제되어 경제적 충격 완충 기제 부재
 - 민간부문에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체적 구심점 및 연대를 위한 수단 미비
-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근본적 취약점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증폭되어 파괴적 결과 초래

III.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의 부상을 바라보는 관점

- 2000년대 중반 이후 공연의 영상화/디지털화의 꾸준한 발전
- 그러나 여전히 예술분야는 대면을 중심으로 하는 라이브 예술이 주류
- **코로나19로 대면으로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면서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급부상**

Q1. 온라인/비대면 콘텐츠는 현장 예술을 대체할 것인가?

- 온라인 프로젝트 경험률(40.7%), 참여건수(2.7건, 새로 제작 1.8건), 녹화영상 송출(65%), 라이브 스트리밍(47%), 온라인 뷰잉룸(12.2%), AR/VR 등 활용(3.7%), 향후 참여의향(69%)
- 현장성(liveness), 몰입도, 완성도 있는 콘텐츠 제작-유통을 위해서는 상당한 제반노력과 비용 수반 (2020.1월~8월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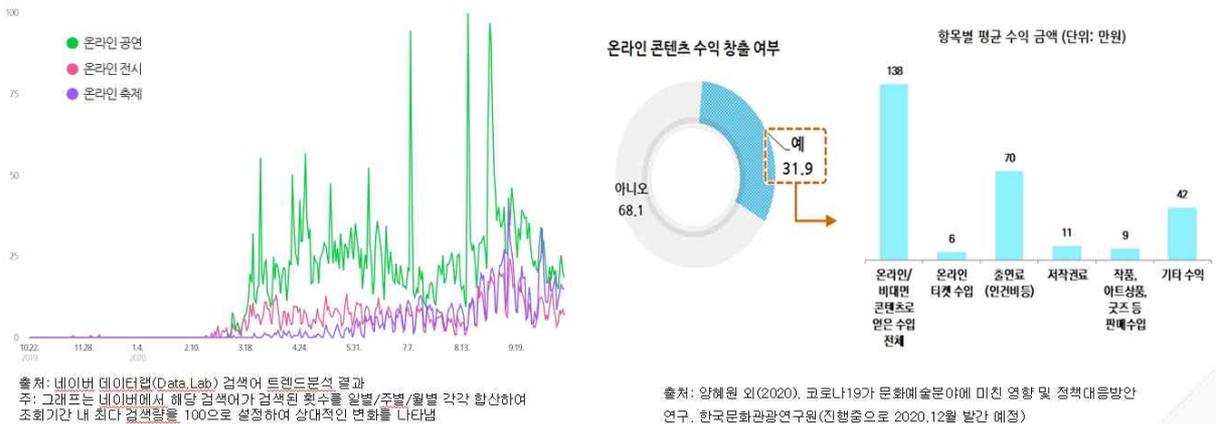


III.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의 부상을 바라보는 관점

Q2. 온라인/비대면 콘텐츠는 새로운 관객 기반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관객접근성 확대(51.3%), 새로운 관객 확대(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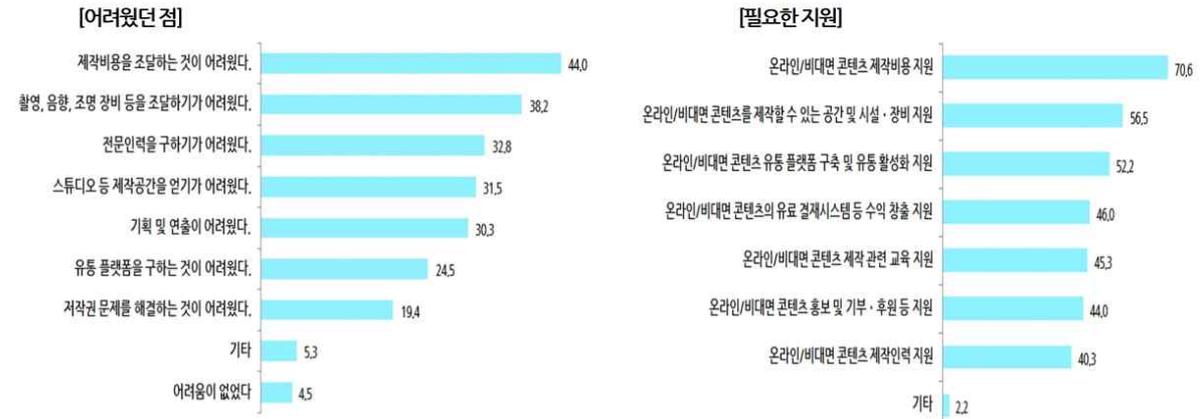
Q3. 온라인/비대면 콘텐츠를 통해 예술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 긍정적(37.2%), 수익창출 경험(31.9%, 주로 출연료)
- '문화 및 레저서비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전년 동월 대비 -56.7% (2020년 8월 온라인쇼핑 동향)



III.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의 부상을 바라보는 관점

Q4.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의 제작·유통·향유에 필요한 기반은 갖추어져 있는가? 공간, 인력, 플랫폼, 유료결제시스템, 저작권 제도 등
 Q5.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전략은 가지고 있는가? 자본지배력 증가(70.9%), 양극화 심화(59.9%), 현장성 및 고유성 침해(53.8%), 신진예술인에게 불리(36.3%), 다양성 침해(48.2%)



출처: 양혜원 외(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진행중으로 2020.12월 발간 예정)

IV. 팬데믹 시대 예술의 의미, 그리고 새로운 탐색과 시도

-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상실,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소외, 혐오와 갈등 심화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 연대와 회복을 위한 치유자로서의 예술**
 - 발코니 콘서트, One World: Together at Home, Do remember they can't cancel the Spring, 힘내라 콘서트, 온라인 미술관, 봄의 도시 춘천 전국에 안부를 묻다: 온라인100인 라운드테이블
- **예술을 통한 시대적 성찰 : 팬데믹 시대의 기록자로서의 예술, 감춰져 있던 진실의 폭로자로서의 예술**
 - Corona virus Art, neo-COVID Impressionism, 코로나바이러스 다이어리, Masked mouse looks out from the Diamond Princess at the Yokohama Bay Bridge, 런던 로열 코트의 Caretaker, 생태예술(ecological art)
- **새로운 무대(소규모화, 야외공간, 지역(local) 등)와 제작방식에 대한 탐색,**
 - Drive in theatre, Pandemic theatre, 방구석 탈출 클래식, 조립식 영화, In Own Space3 프로젝트, 국제화상기획회의, 창문초상화
- **온오프 믹스(on-off mix), 상호작용성(interactiveness) 강화, 첨단 체험기술 활용**
 - 비대면 연극놀이 영지를 찾아라, 실시간 댓글과 피드백, PAMS의 팸바타, Beyond Live

IV. 팬데믹 시대 예술의 의미, 그리고 새로운 탐색과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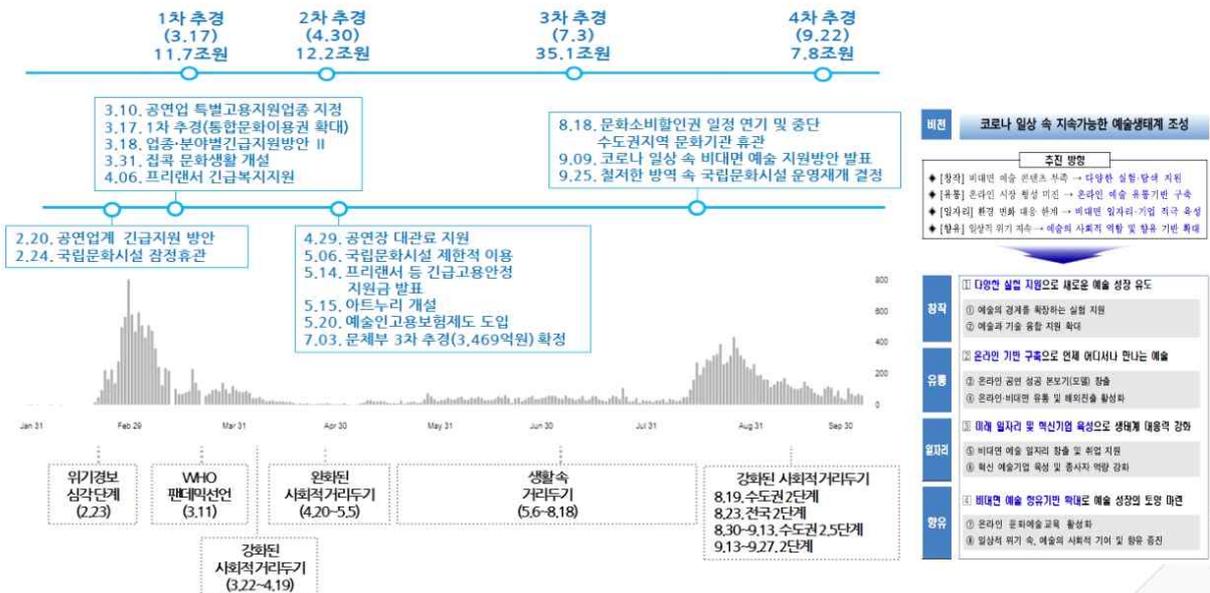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예술의 존재방식에 대한 전망

- 일정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면서 사회적·감성적 연결은 강화할 수 있는 형태 증가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온라인·비대면 콘텐츠가 중요한 한 축으로 등장
 - 국제적 예술교류, 대규모 국제예술행사, 국제투어 등의 감소
 - 소규모 관객 대상, 지역(local) 단위의 프로젝트 증가
- 다양한 형태의 공간, 매체적 실험, 대면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실험 강화
- Risk Management의 중요성 확대
- 사회적 예술(social art), 생태예술(ecological art) 확대

▶ 다양한 방식의 공존, 그리고 적응역량 확보의 중요성

- 대면/비대면, 대규모/소규모, 국제/전국/지역 단위 방식의 공존
-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다양한 매체, 형식, 운영방식을 조정 : 조직구조와 운영, 작품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 전반의 변화
-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 역량의 확보방안 모색

V. 코로나19 대응 예술지원정책의 성찰



V. 코로나19 대응 예술지원정책의 성찰

- 중양정부 정책사업 신청 현황 및 수혜 현황(복수응답, 상위 10순위), 만족비율(56.8), 불만족 비율(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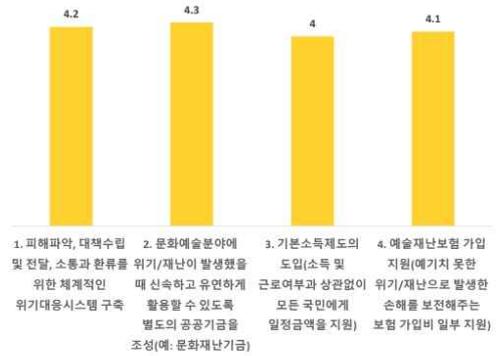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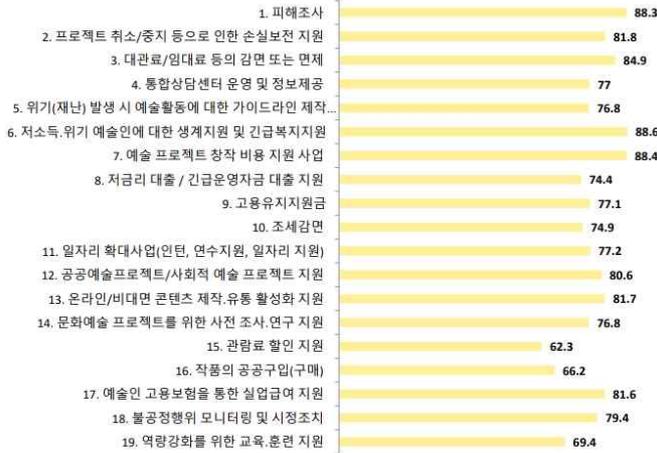
V. 코로나19 대응 예술지원정책의 성찰

- 코로나19 전담장구 상담경험(4.4%) : 몰라서(51.4%), 도움이 안될거라 생각해서(3.48%)
- 아트누리 홈페이지 방문경험(9.4%) : 도움이 되었다(26.7%), 도움이 안되었다(27.4%)
- 지자체 지원사업 수혜 경험(30.1%)



V. 코로나19 대응 예술지원정책의 성찰

▪ 위기/재난상황에서 필요한 정책



V.코로나19 대응 예술지원정책의 성찰

구분	주요사업	주관기관		
공공재정 지원	문화예술부문에 대한보조금과 교부금	방역지원 공연예술창작활성화사업 공연장 대관료 지원 민간소극장긴급지원(공연예술특성화극장)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사공간 긴급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별 예술인 지원 보조금과 교부금	긴급모금프로젝트 공연/전시 소비할인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손해의 보전	창작준비금,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융자, 보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노동부	
	투자유인	긴급생활안정자금용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 지원	일자리유지/ 소득 지원/ 일자리 창출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조사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실업 지원	긴급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대상) 고용유지지원금(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노동부, 문체부 고용노동부	

구분	주요사업	주관기관	
자별연기 와 행정절차 완화	선지급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세금 환급금 조기지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세청
	지불유예	국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국세청
	조세경감	-	
	절차적 유연성	심사절차 완화, 사업계획변경인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조적 변화 정책	창의인력 교육훈련과 고용	(기존) 예술인력육성사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용노동부
	예술영역의 중요성 환기주장	코로나19 예술포럼(UNESCO ResilArt 연계) 피해현황 조사, 분석, 영향 연구 코로나19지원 통합플랫폼 아트누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지털화	집콕 문화생활 패키지 개설 코로나 일상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발표 공연실황 생중계 공연예술 온라인확산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역량 지원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저작권 라이선싱	온라인수업 지원 콘텐츠 제공 저작권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 배포 저작권 제도 개선 추진	문체부	

V. 코로나19 대응 예술지원정책의 성찰

- 코로나19 위기대응 Control Tower 및 협력체계 취약, 현장과의 쌍방향적 소통의 미흡
- 경직적·일괄적 문화시설 운영 정책
 - 휴관/개방/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 부재, 좌석 간 거리두기로 인한 손해, 타 업종 규제와 비교한 상대적 박탈감
- 정책수단의 시의성과 적실성 논란
 - 대면 예술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창작지원사업, 관람료 지원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인력지원사업 등의 유용성 감소
 - 긴급생계비 지원/과정중심/사전 리서치 및 기획 지원/인건비 지원 등의 선호도와 유용성이 높음
 - 소액다건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집중, 완성도 있는 콘텐츠의 제작 유통을 위한 제반 조건에 대한 고려 미흡, 기술 중심 접근
 - 집행인력 부족, 준비 부족으로 졸속 집행 논란, 소규모 지원으로 효과성 논란
- 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타 부처 지원사업으로 예술분야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 발생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의 감소 증명 곤란: 증빙의 문제, 간헐적 소득
 - 소상공인 용자 지원사업 등: 노동집약적 공연예술의 특성으로 지원대상에서 누락, 상환 부담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이므로, 업무의 수행이 불가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위기 속에서 예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의지 표명 미약
 - 한국형 뉴딜정책에서 예술분야 누락

VI. 코로나19 이후 예술지원정책의 미래 방향

주요 방향성

- ✓ 일상적 재난사회에서 전환의 문화예술정책 지향: 새로운 도전에의 응전, 취약한 체질의 근본적 개선
- ✓ 예술생태계를 고려한 균형적 접근
- ✓ 예술 및 사회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bouncing forward)를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인 공적 투자의 관점 견지

1 코로나19 피해의 회복과 정상화

- 위기발생 시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시설 운영의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
 - 안전하게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예측가능성의 부여, 예술생태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 문화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예술인/예술단체 활동 가이드라인
- 전국 문화시설 방역설비, 환기시설 구축, 방문자 동선 최적화 등 리모델링 지원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기존 지원사업의 보완과 확대
 - 특정 집단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사각지대의 탐색 및 개선
 - 중앙정부-지자체 사업 간 유기적인 변용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자율성 부여

코로나19 이후 예술지원정책의 미래 방향

2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 문화예술분야 위기대응 컨트롤 타워의 설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피해 파악을 위한 채널 및 데이터·통계 시스템 구축
 - 예술현장의견 수렴 - 지원대책 수립과 전달 - 쌍방향적 소통 및 환류체계 정비
- 지원사업 운영방식의 대응성과 유연성 강화
 -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안적 시나리오 수립, 지원방식의 유연성 확대
 - 전통적 개념의 '작품' 창작 지원 → 프로젝트 지원, 활동 지원, 과정 지원, 역량강화 지원(fellowship), 사후지원, 개인/단체/사업체 대상 지원 등 다양화
- 위기상황에서 유효한 정책수단의 연구·개발 추진
 - 중장기 추적조사, 위기단계별 지원, 맞춤형 지원
- 위기재난 발생 시 피해의 완충 및 최소화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 검토
 - 예술재난보험, 문화비상기금, 예술인 공제회, 기본소득제도 도입 등

V. 전환의 시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 모색

3 디지털 전환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대응

-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세분화
 - 기획 지원: Target 설정, 미디어 전략, 홍보전략 등 포함
 - 제작 지원: 글로벌 관객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수월성을 갖춘 콘텐츠의 제작 트랙도 필요
 - 제작 및 유통 인프라 지원: 시설·공간(스튜디오), 장비 지원 및 대관·대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인간 역량의 적극적 활용), 결제시스템 구축, 홍보, 기부후원 등 재원조성 및 시장형성 전략
 - 유통 지원: 에이전시 활성화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협업 지원
 - 디지털 콘텐츠 기획, 연출, 촬영, 조명, 음향, 첨단기술 등 교육 확대, 예술콘텐츠 주도적 관점에서의 기술지원 및 협업지원
- 저작권 교육 강화 및 제도 개선
 - 정당한 보상을 위한 수익배분구조,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 함께 고려
- 고통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모색
- 다양성 확보를 위한 실험적·혁신적 예술 지원 확대
 - 자본의 지배력, 플랫폼 지배력 확대(플랫폼 유통 수수료 등)의 부작용 완화

V. 전환의 시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 모색

4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접근 확대

-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advocacy 활동 강화
 - Art is resilient, Art makes us resilient
 -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곧 개인, 공동체,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 사회적 예술 프로젝트/사회회복 프로젝트 추진
 - 사회적 고립, 외로움, 불안, 학대, 혐오, 갈등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추진
- 생태예술(ecological art) 프로젝트 추진
 - 그린뉴딜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생태계의 위기,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테마로 하는 생태예술 프로젝트 추진
 - 탄소Zero 예술 프로젝트 등

5 예술분야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창작안전망 강화

- 보편적 사회안전망 강화 속에서 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창작안전망 구축 지원
- 과도한 공공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조적 연대체(예술인 공제회)의 설립 지원
- 예술시장의 건강한 형성 지원

감사합니다.

※ 본 발제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주요 참고자료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혜원(2020), 위기의 시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전환 모색, 2020 아시아문화포럼 발제자료

양혜원,김면,차민경,김현경,노수경(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월 초 발간 예정)

3. 패널 토론 및 종합토론

토론 대주제	예술지원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과 전략 제안
소주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예술지원의 방향 <p>현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예술현장에 필요한 대응정책, 유사재난 상황발생 대응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예술가(단체)/ 공연장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한 사업, 지원 정책 등</p>
소주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방식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p>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지원의 원칙과 방향수립에 대한 제안 예) 지원방식, 지원기간, 사업내용, 기관협업, 일하는 방식 등</p>
소주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질의응답 - 새로운 환경변화와 적응을 위한 제안 <p>[소주제2]와 함께 최근에 나타난,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환경변화를 고려한 의견 논의 및 제시 예) 온라인지원이 긴급대응으로 적절한지, 이를 예술창작의 전환계기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 외에도 다양한 환경변화 및 수요층을 고려한 활동 전개 방안 등</p>

※ 토론 패널의 발제를 숙기하여 수록하였으며,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맥락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운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김대현(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듣고 있는 표현이 언택트(untact, 비대면)라는 말일 텐데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그리고 당장 저희 포럼도 마찬가지고요, 쇼핑도 택배처럼 비대면으로 주고받고 있지요. 이렇게 생산과 소비 등 다양한 일상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대로,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정책도 현재, 비대면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고요. 덕분에 기존 영상매체와 친하지 않던 많은 예술 분야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신들의 활동 내역이나 창작물을 전시·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이

재난 상황에서 본연의 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예술 향유자 측면에서도 다들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디지털기기를 갖고 있잖아요. 이러한 기기를 통해서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예술 활동에 대해서 접근 용이성이 증가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장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에서 나왔듯이,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이 상황을 오히려 예술창작의 전환 계기로 삼고, 비대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앞으로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축을 이동해야 한다는 변화를 읽어내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어요. 물론, 단순히 보수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은 예술 활동 프로세스에 대한 저항감의 발로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너무 쉽게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아무런 담론 형성과정 없이 쉽게 순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다들 하시겠지만, 온라인 회의,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원격진료, 자율주행 자동차 등 최근 떠오르는 이러한 키워드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이른바, 탈인간·탈관계를 가속시키는 4차 산업혁명 테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량실업이나 인간 중심의 사유들이 무너지고, 사회관계 면에서 해체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하면 방향성 없는 산업의 진보에 대해서 문화예술이 인간을 중심축으로 놓고, 다르게 생각해보자는 활동들을 생각하시죠. 예컨대, 현장에서 공연하고, 이를 관람을 통해서 장소의 정동을 공유하는 자체가 예술성의 핵심을 이루는 공연예술 분야라든지 아니면 물성을 가진 책을 통해서 말텍스트가 아니라 문자텍스트로 사유·숙고하는 과정을 본령으로 하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문학 분야가 한 예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마저도 긴급한 재난 상황이라고 하여 단지, 정책적 편의성을 위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게 된다면, 우리 문화예술이 그동안 대항해왔던 것들에 대해 너무 쉽게 투항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술 활동의 형식이 사회 체제의 변화와 상관없이 전혀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그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예술 자체의 내재적 변화가 동인이 되어야지, 산업화 요구나 어떤 팬데믹(pandemic, 세계적인 유행병)이라는 긴급상황에서 정책집단의 지원정책에 유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비대면 프로그램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형식 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수의 비대면 프로그램 평가가 예술 활동의 역량보다는 영상편집의 기술적 수행에 따라 평가가 된다는 것도 좀 그렇죠. 그러다보면 예술가들이 걸으로 보기에 좋은 영상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창작활동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거기에 투입함으로써 목적과 수단의 전치를 가져온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 공평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공모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지역적, 세대적 여건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기술 수준이 높은 편집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경우 비대면 프로그램 제작 그 자체에서 소외되는 예술분야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디지털과 친하지 않은 세대인 경우 아예 처음부터 체념하는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예술 향유자 측면입니다. 앞서 일종의 접근의 용이성이란 장점이 있었지만, 이른바 예술 향유자들은 이미 TV나 영화, 넷플릭스 같은 것으로 훨씬 높은 기술 수준의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대면 프로그램을 단지, 보여주기 성과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수준이 안 되는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예술성의 본령을 이루는 현장성·상호작용·텍스트 이해, 이런 것들이 완전히 거세된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전시·배포하는 것은 오히려 예술의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는 것보다 예술에 대한 실망감과 저항감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술성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작자 권리 측면에서도 이렇게 무단복제에 대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작권 오남용 문제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정식(Ghost LX 디렉터)

일단, 저는 리스크 관리보다 김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어디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온라인 매체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전부터 비대면이라는 창작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 팬데믹 이후에도 이런 (비대면 창작) 모멘텀(momentum, 여세)이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모멘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저탄소

관련된 부분들도 비대면으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팬데믹 이후에도 충분히 비대면 소통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팬데믹 이후에 전체 예술작품을 모두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공연장이나 미술관 공간을 디자인할 때에는 팬데믹 이후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전시·공연장을 설계할 때는 5년마다 필요시에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멘텀들은 계속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성지수(기후정의 창작집단 콜렉티브 텡굴 대표)

저희는 공연예술 기반으로 한 다원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심리적 어려움부터 경제적 어려움들을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예술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돌이켜 보면 올해에 팬데믹 뿐만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장마도 맞이했었고, 홍수도 왔고, 폭염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기상학자들이 올 겨울 최악의 혹한마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자연현상들이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읽히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봐야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이 강도나 빈도 모든 차원에서 인류의 과학적 예측 가능성과 기술 대응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후 얘기를 얘기하는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나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과학자들조차도 인류 문명을 읽어온 이 기후, 홀로세(Holocene, 1만 년 전 ~ 현재에 이르는 지질시대)라고 하는 것이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아가 단일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아닌 전반적으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닥쳐올 수 있는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춘 예술지원 정책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향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2050년 ‘탄소제로(Zero)’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얘기는 기후 얘기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전 세계 많은

정치인들, 국가들이 기후 얘기를 하니깐 우리도 하겠다는 정도에 그쳤었어요. 왜냐하면, 배출을 제로(Zero)로 만드는 ‘탄소제로’ 를 향한 목표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차례 제시된 바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이 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지금부터 이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린뉴딜은 환경정책이라기보다는 인류가 엄청나게 탄소를 배출해왔고, 그로 인해서 기후가 바뀌었고, 인류가 쌓아왔던 문명이 전환되고 있으니 이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거주 불가능한 지구를 예측하는 기점인 2050년에 다다르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투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국위선양이나 문화산업의 발전에 목표가 있었다면, 이제는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로 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그린뉴딜이지요.

이제 정부 각 부처와 국회가 그린뉴딜의 관점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남았다고 생각하고, 문체부나 관련 단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화된 재난 속에서 어떻게 예술을 향유하게 할 것이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낼 것인가의 차원에서 재난 지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윤희(미술작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시각예술계 경우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기관리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토양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위기관리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부재한 상황에서 코로나 긴급지원은 각 지자체와 문화지원 기관들 간에 경쟁을 벌이듯 산만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지원을 실시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위기상황에서 긴급지원의 우선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선별지원이 적합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리고 예술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피해를 겪고 있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복잡한 절차와 형태로 이루어지는 긴급지원이라는 것에 상세한 정보 공유와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예술인들과 상호 협력 속에서 위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긴급할수록 더욱더

적재적소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긴급지원이 어떻게 수렴되고 반영됐는지 그리고 진행 중인 긴급지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예술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역에서 실시했던 코로나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방역 관리 정책에 따라, 전시나 창작 활동들이 기약 없이 늘어지고 전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전시가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고, 미술교육이나 여타의 프리랜서 활동이 중단되면서 생계 위기와 무기력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선 발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미술 전시공간을 운영하거나 고가의 장비를 대여해서 대규모 프로젝트 작업을 했던 경우에도 중단되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도 컸습니다. 그러나 개인 예술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장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 버티는 게 능사라는 시각이 시각예술 분야에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기 대응 지원정책 중 공공에서 작품을 구매하는 미술 은행이나 창작 준비과정 지원이 시각 분야 예술가들에게 보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각 예술가들이 원하는 지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획한 일을 하지 못하고, 생계 곤란도 겪고 있고,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원서류를 잘 작성해야 되고, 거기에서 채택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는데요. 결국,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죠. 특히 취약한 조건의 예술가가 사각지대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큼니다. 예술현장에서 실시한 코로나 피해조사의 결과도 앞선 발제자분들의 조사 발표 결과와도 유사한데요, 현금 형태의 위기 지원, 생계지원 그리고 저금리 대출 등의 유기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컸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지원에 따라 공유되는 작품들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작권이나 2차 저작물, 배타적 발행권 문제 등 작품의 저작권 침해 관련 이슈가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지원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에 접속하는 예술가들이 저작권 침해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낳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시각예술작품의 권리 침해 상황에 대한 조건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진행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한편 시각예술계에서 아티스트 피(artist fee, 예술가 보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예

술만 특별하게 존중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정치적 국면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작가들 스스로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범위로 국한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쟁점과 사안들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서, 위기 지원의 법제화 또는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각 예술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결과 팬데믹이 도래한 세계에서는 컨트롤 타워의 의사결정 구조와 작동 체제를 구심점으로 과감한 긴급지원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효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우리가 ‘재난을 겪는다’, ‘재난이 일상화되었다’ 라고 이야기 할 때, 여기서의 문제는 경제적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어떤 점에서는 전면적 위기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금융위기와 차별적인 지점들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문제를 겪고 난 다음의 세계,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저는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 주변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 위기라는 것은 한 축에 있고, 적대나 혐오 이러한 극단주의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우리에게 도래한 것인지 싶고요. 어떤 점에서는 ‘공론장’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공론장’ 이 거의 붕괴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죠. 사실, 재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국가나 행정이 한 주체로 있고, 나머지는 다 개인으로 있다’고 상정하면 굉장히 비극적인 것 같아요. 예술지원 추경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고민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영국에서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제3의길(The Third Way, 앤서니 기든스, 1998)’ 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민사회나 풀뿌리 민중과 국가 운영 체계를 어떻게 공유하면서 협력해서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제3의 길’ 의 핵심 문제의식이었지요. 국가나 행정은 한 축에 있고, 개인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일례로, 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만들었어요. 요즘에 완전히 희화화되고 있지만 공공미술 사업도 만들었지요. 이럴 때 각 지역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주체들의 조합이나 네트워크가 있다면, 자구적이고 자활적인 질서를 만드는 데 국가 재원이 사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커

뮤니티 활동 중심인 비대면/온라인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 입니다. 150억 재원 집행 접근방식을 살펴보면, (지역 내 관련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부재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나 조합과 연대해서 집행할 수가 없고, 지역 문화재단과 협력해서 예산을 교부하거나 공공미술분야의 경우에는 행정단체에 주는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지요. 앞서 ‘제3의길’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비스 전달체계 즉, 국가복지 전달체계나 예술지원 전달체계를 거버넌스 형식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핵심지점입니다. 만약 현재 상황을 그렇게 재편하려고 한다면, 문화예술계 거버넌스의 현 양상을 우선 분석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나 소위원회 구조는 거버넌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가 아니다’ 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해 정책을 형성할 때 위원회/소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나 일상 구조의 거버넌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하건데 새로운 예술지원체계 내에서 극장을 운영하는 파트너 조직들이 있다면, 공공극장이 문을 닫았을 때 폐쇄된 극장에서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면 되지요. (물론 일부 이벤트처럼 대응을 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거버넌스 체계가 없다면, 재난이 일상화 되었을 때 우리가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을 구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이든, 예술 장르든, 새로운 영역이든 실험하는 그룹들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집행체계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지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사실, 국가 앞에서는 다 무력한 게임이에요. 다시 말해, 국가한테 내가 어려운 것을 알아달라는 얘기잖아요. 현 체계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기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말로 본격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고민해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한테 왜 협회한테 돈을 주는지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왜 협회에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줘야할지 고민이 되는데, 거버넌스 체계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공전합니다. 문체부도 면피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소극장 협회에 예산을 주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 대주제	예술지원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과 전략 제안
소주제1	-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예술지원의 방향 현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예술현장에 필요한 대응정책, 유사재난 상황발생 대응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예술가(단체)/ 공연장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한 사업, 지원 정책 등
소주제2	- 기존 방식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지원의 원칙과 방향수립에 대한 제안 예) 지원방식, 지원기간, 사업내용, 기관협업, 일하는 방식 등
소주제3	- SNS 질의응답 - 새로운 환경변화와 적응을 위한 제안 [소주제2]와 함께 최근에 나타난,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환경변화를 고려한 의견 논의 및 제시 예) 온라인지원이 긴급대응으로 적절한지, 이를 예술창작의 전환계기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 외에도 다양한 환경변화 및 수요층을 고려한 활동 전개 방안 등

○ 정윤희(미술작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맥락이 닿아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실제적인 거버넌스 작동에 있어 사실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술 현장에서 협회 차원이 아니라 개인이나 젊은 세대들 중심의 네트워크를 꾸려서 공론장을 계속 모색하고 있어요. 예술계에 주권자로서 인식이 있어야 하겠지만, 사실 민주적인 절차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경험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위계 문제로 인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 하에서 지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공론장을 계속 열어라.” “결정할 때, 현장과 매칭해서 어떻게 열 것이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론장을 열어서 오픈 포럼을 열든 혹은 지역에서 무언가를 열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거대하게 견고한 성처럼 쌓여있는 권력 집단들, 특히, 국가 차원도 있지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치세력과 문화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견고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도 서울로 가지고 와서 중앙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즉 모든 주체가 모이는 곳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재현됩니다. 저도 수년

간 노력을 해왔지만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사무처장님께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합니다. 작년에는 예술위 7기 위원 선임과정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예술위와 관련 “지역에서 예술계 현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신뢰가 무너졌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홍보를 위해 예술위는 무엇을 합니다, 예술지원을 하니까 많이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술위가 예술인의 의회로서 혹은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회적 합의를 여는 장소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안했던 것은 각종 공론장이 있으면 그것들을 꼭 모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역문화 차원에서 열리긴 하지만 각각 굉장히 다른 맥락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권리나 침해, 혹은 지금같이 위기관리, 예술지원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등 각 주제별로 열리는 작은 공론장을 꺾어서 네트워크화 한 다음, 이를 통해서 합의의 장을 마련해보는 시도를 해보자는 제안들이었고요. 그런데 작년 말이 지나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드니 이런 논의내용은 사라지는 거죠.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준으로 곧 공개될 토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코로나 위기 대응 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사태와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수직적인 구조가 일방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죠. 왜 현장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긴급하게 지원된다.”, 혹은 “상급기관의 지시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를 볼 때 예술가를 수동적인 주체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구책이나 자체적 노력들이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시도들과 공적 기관이 만났을 때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나 기관 차원에서 노력해서 코로나 대응책을 지원하지만, 현장에서는 역으로 예술가들의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조직의 설립 취지가 예술인의 의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놓고 싶지 않은 것은 예술이 오로지 공적 관료체제 안에서 결정된 부분만 존재하고 인정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술가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왔지만, 이로 인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토론회

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열리는 데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예술위라는 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제가 기관에 “왜 이런 지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여쭙봤을 때, 문체부나 기재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일례로, 블랙리스트 문제 발생 이후 원래 취지대로 예술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독립적인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요,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예술위 지원사업 역시 이전의 기금관리 중심으로 갔던 방향에서 독립성 있는 예술 기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레질리언스 개념에 기반한 위기 지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지원기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맞아서 도전하고, 자정하면서, 성장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예술 지원 시스템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 매우 이상적입니다. 위기 지원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이번과 같은 포럼이 중요하긴 한데, 포럼 계획도 상향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발제는 관에서 진행하고, 관의 연구 결과를 공유한 다음, 각각의 예술 현장에서 나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기존 방식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예술위 현장소통소위원회가 진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현장소통소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의 의견들을 모아놓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포럼이 준비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관합의제 정책기구에서 의결 권한의 분산들이 필요한 지점인데요,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이뤄지는데 있어서 의제 결정과 자원의 분배. 특히 평등한 구조로 분산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레질리언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예술위의 독립성이라는 부분과 실질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밝혔습니다.

○ 성지수(기후정의 창작집단 콜렉티브 똥굴 대표)

제가 사전 제출 토론문에는 단일한 상품으로서의 예술작품 생산 체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는데요. 생산 후 유통되고, 시장형성을 목표로 하는 예술창작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설득력을 잃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유은선

사회자님께서 BTS와 경쟁할 수도 있는 기초예술이 당면한 현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소위 기초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예술인들은 콘텐츠 상품으로서의 예술창작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다수의 예술지원 사업이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는 자부담률을 높여서 독립할 것인가를 바라보게 설정되어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몇 명의 향유자를 만났느냐, 자부담률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늘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산업, 소위 말해서 콘텐츠를 생산, 유통하는 문화 분야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가치를 지닌 예술들이 계속 있어 왔고, 바로 그것들이 예술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관조를 통해서 미적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즉 근대성을 기반으로 한 상품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것이 미투(MeToo) 운동 이후에 많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난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도대체 누가 온라인에서 BTS를 볼 수 있는데 게다가, 제 작품을 유튜브로 보겠습니까. 이런 지점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과정에 집중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술로 향유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공동체의 가치 확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인식에 기반한 예술지원 사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어려운 지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특히 양적 평가, 경제적 평가 척도 이외에는 지원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자체가 거의 부재하다고 느끼는데요,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이후 실상가상으로 다른 재난들이 같이 발생하는 신데믹(syndemic), 나아가 워드 코로나(with Corona), 기후 재난, 기후 난민 사태가 엄청나게 발생한다면, 당연히 문화예술 분야에 국가 예산이 적게 투입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콘텐츠 생산에 중심이 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무언가의 이유로 예술이 가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창작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이를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금 지원사업 체계에서는 대체로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이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한 예술인들을 구제하는 차원의 예술지원 체계는 조금씩 없어져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지금처럼 위기 대응을 논하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위기를 맞이한 것은 전체 국민, 전 세계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불쌍하니까 공적 지원으로 도와줘야지.” 라는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과정 지원사업의 경우 주로 청년 대상 소액 다건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기간을 늘리고, 금액도 증액하고, 의무교육 기관들과 협력해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 부분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신설되고 있는 온라인/비대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라인/비대면의 경우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만나니까 코로나 안 걸려. 그리고 웬지 내 앞에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깔끔해.” 라는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 및 장비 때문에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되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는 어느 정도의 대응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신데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뿜하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에 앞선 데이터 센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 영상파일이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었다가 전송되는 것이지요. 가상공간 상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료들도 현실기반의 저장소가 필요하고요, 이를 유통하고 굴리는 데는 엄청난 규모의 냉각장치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고, 생성된 데이터를 지우려면 환경을 밀어야겠죠. 지금 우리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가상현실마저도 이러한 이유로 사실은 굉장히 유한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난립될 수 있다는 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입장이기도 해요. 우리가 영상을 30분 재생하면, 1.6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유차로 6.3km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맞이해서 그 중 하나로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극복해보겠다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들을 양산한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양혜원 실장님 발제에서도 생태적 관점 도입의 차원으로 생태예술이 하나의 분야로 제시되었는데요, 예술지원 체계 전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생태적 관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술이 매우 용이하게 그린워싱(greenwashing, 녹색경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주제를 그린 뉴딜, 기후위기로 걸었지만, 실제로 창작하는 과정이라든가 유통하는 방식이

다분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큰 거죠. 관에서 “이런 예술을 해야 해.” 라고 해서 그냥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해버리지 않게 하려면, 각 작업별 선정된 탄소 배출량 산출하는 것이 지금부터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추적해서 연구·자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예술 창작과정 내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의 연구가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나 비건 지향(비거니즘, veganism: 동물을 착취를 지양하고, 동물권 옹호 및 종 차별에 반대하는 사상과 철학)을 창작과정에서 실천하겠다고 하는 팀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도 저는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정식(Ghost LX 디렉터)

저는 아트앤테크(Art&Tech) 기술팀원으로 지금 작가님들을 2년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을 위해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를 받아들이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연구를 진행할 때 혁신확산모델(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이라는 에버릿(Everett)의 이론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부록] 사전 토론문에 도식 참고, p.59),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즉,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혹은 새로운 혁신을 볼 때, 이러한 혁신에 빨리 적응하는 예술가들도 있지만, 먼저 사용해 보고 나중에 선택하는 예술가들도 있고, 혹은 나는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예술가들도 있지요. 이처럼 여러 가지 대상 계층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섬세하게 수용자 중심에 서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설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폰이 새로 나왔을 때, 아이폰을 바로 구입하는 분도 있지만, 최신 아이폰 12가 나왔을 때 이전 11 버전 제품을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처럼, 새로운 혁신, 즉 비대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접근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 혹은 왜 그런 가치를 싫어하시는지 등을 이해하면서 지원정책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에버릿의 모델을 보면, 캐즘(The Chasm)* 구간이 있어요. 초기 단계에 빨리 혁신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혁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다수 인원이 이러한 혁신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결국 선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비대면이라는 것도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캐즘의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술가들과 소통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자세히 설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캐즘: 첨단 기술·상품이 출시 이후 빠른 수용자 중심의 초기 시장과 전·후기 다수수용자 중심의 주류 시장 사이에서 수렁에 빠진 것처럼 일시적으로 심각한 정체를 겪는 현상

○ 김대현(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물론 비대면 프로그램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 스스로도 본인의 작업 활동에 있어서 비대면 프로그램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결합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완전히 도외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대면 프로그램은 주된 지원 정책이 있다면 그에 대해 보충적이 되어야 하고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비대면 창작환경이나 교육과정을 마련해주는 형태로, 즉 예술가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동감합니다. 앞서 4차 추경까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특정 분야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문학 분야는 정책적으로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독서를 하니 문학 분야는 괜찮다는 인식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듣고 문학 현장과 완전히 유리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지도 있는 작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대다수 작가들은 출판도 중요하지만, 강연도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이것이 전부 단절되거나 연기된 상황에서 그런 인식들을 과연 못했을까, 정말 거버넌스 과정이 있었으면 현장과 유리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란 대목에서 통감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방식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 수입이 연 1천2백만 원. 그러니까 월 평균 백만 원을 버는 예술인들이 전체의 72% 정도에 달합니다. 최저생계급여에도 미치지 못하고, 쓸쓸히 생을 거둔 예술인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라서 딱히 새삼스러운 결과는 아닌데요,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대다수 예술인의 삶은 언제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가장 바라는 지원의 형

태도 사실, 일회성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의견을 취합해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과 같이 예술인 본인의 창작활동과 함께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공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예술가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이른바 문화뉴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지역의 공간, 생활상을 예술가의 시각으로 기록하는 것이나, 앞선 발제문에도 나왔듯이, 코로나 사태를 예술가의 시선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예술 활동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적 지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소하고, 동시에 예술인들의 삶의 질 재고를 통해 안정적인 창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충분한 효과를 본 이러한 정책에 대해 문화예술정책 부서만 소환시키지 말고, 다른 유관기관들 혹은 다른 지자체나 공공단체까지 적극적으로 관련 단체로 나서서 연결점이 있는 새로운 사업지점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일자리를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단순노동이나 용역처럼 전락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술이 제도에 포섭되는 순간 예술에서 기대하는 활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자리를 만든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예술의 특수성을 이해시키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언제든지 개입해서 중재할 수 있는 관리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술인 고용보험 얘기도 나왔는데요, 사대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실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지원 주체들이 직접적으로 고용주체가 되는 고용 형태를 취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술 활동 공정보상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예술은 근대미학의 핵심 태제인 자율성 문제 때문에 예술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논의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회피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술가가 공정보상을 많이 못 받았는데요, 표준계약서 등 법령 형태로 제정해서 예술 활동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이 모여서 우리들 스스로 예술의 변화지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술인 네트워킹을 조성하는데 지원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분들의 노하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 지원도 고려해주신다면, 예술인 스스로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효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국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나 지원사업이 개인의 욕구, 시대적 요구와 괴리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각도에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괴리가 날로 심해지는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전환기는 이처럼 괴리의 심화라는 특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하는 얘기와 현 상황이 안 맞기 때문이죠. 요구와 대응이 안 맞고, 시대적인 과제와도 잘 부응하지 않는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술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 가지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닥이 허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한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던데요, ‘재난이 차별적이다’ 라는 말처럼 어떤 부분은 바닥이 확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꼭 예술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요, 성지수씨 토론발제 내용과 같이, 예술인의 특수성으로 사회적 안전망 문제를 다룰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다룰 것인지의 문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해한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전 국민 취업 보장제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술계에서만 따로 지원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자면, 국가가 보편적으로 지원하면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는 것은 보편적인 이슈 차원에서 통합하고, 예술계의 바닥이 무너지는 것은 지원정책으로 메꿔야 하는 것이지요. 한편 예술의 가치나 예술의 사회적 역할 같은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가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편적 복지와 안전망 문제와 조금 다르게 다루어야 하겠지요. 일반적으로 윈도우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극장에서 공연을 올리기까지의 일직선으로 쪽 진행하는 그런 예술창작 방식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사이에서 다양한 것들이 시도될 것 같습니다. 통상 한국사회를 토건국가라고 하는데요, 지역 문예회관을 짓는 데도 300억씩 들어간다고 해요. 앞으로는 이처

럼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처로 방향을 어떻게 선회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농담처럼 3대 분야에 투자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 투자하자, 사람에 투자하자, 실험(또는 활동)에 투자하자는 이처럼 어떤 전환을 이뤄내고자 할 때 이 부분을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 설득하기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설득해야 하고, 담론적 지형도 형성해야 하고요. 나아가 사회적 영향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측정하는 지표도 다시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예술위도 고민을 안고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윤희 위원장님이 앞서 예술위가 독립해야한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 계속 동의했었는데요, 최근의 위기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당연시했던 것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특히 한두 달 전부터 국가나 사회요구에 더 잘 부응해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예술위는 독립이 안 됩니다.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이지요. 독립한다고 하는 순간, “독립해,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예산이 없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술계에서 예술위가 독립해야고 한다는 것보다는 예술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끌여가는 데 주도권을 갖되 이를 통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예술계와 협력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독립을 해요. 이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전략을 세웠으면 합니다.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계가 주도권을 어떻게 발휘할지를 고민하고, 다른 분야에 설득될 수 있는 논리도 만들고, 이를테면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같이 깊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대주제	예술지원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과 전략 제안
소주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예술지원의 방향 현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예술현장에 필요한 대응정책, 유사재난 상황발생 대응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예술가(단체)/ 공연장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한 사업, 지원 정책 등
소주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방식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지원의 원칙과 방향수립에 대한 제안 예) 지원방식, 지원기간, 사업내용, 기관협업, 일하는 방식 등
소주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질의응답 - 새로운 환경변화와 적응을 위한 제안 [소주제2]와 함께 최근에 나타난,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환경변화를 고려한 의견 논의 및 제시 예) 온라인지원이 긴급대응으로 적절한지, 이를 예술창작의 전환계기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 외에도 다양한 환경변화 및 수요층을 고려한 활동 전개 방안 등 - 종합토론 / 최종 종합발언

○ 유은선(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사회자)

Q. 예술위 유튜브에 “예술지원의 변화와 관련하여, 성지수 대표님이 제안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공지원’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 공공성의 이름으로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도구화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 성지수(기후정의 창작집단 콜렉티브 똥굴 대표)

제가 앞서 그린워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예술의 도구화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걱정하고 있는 지점을 말씀해주셨네요. “이런 것을 주제로 삼아야 해.” 라고 했을 때,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 공적 가치를 찾아야 하고, 그것들을 잘 알릴 수 있는 지원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자율성을 해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재난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할 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인간에게 남은 시간이 7년 정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7년 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IMF 시절의 2배 정도로 우리의 경제 활동이 감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기후대응을 위해 애쓰겠다고 마음먹은 오늘자 발표가 실제 로드맵으로 그려진다고 할 때, 과연 예술이 어디에 가서 붙느냐는 거죠. 국가 예산 중 예술 분야에서 공적지원금을 계속 확보하고 향유 기회의 확대를 통해 향유자를 만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생태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고, 생태적으로 위험한 지구적 상황일수록 인간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지점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와 과정을 통해 공적 영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뤄야 해” 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겠지만, 이러한 차원이 아닌, 대의적인 상황에서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제가 발표시간이 15분으로 제한되어있다 보니, 결론 파트에서 디지털 전환의 연락처를 위한 정책적 대응 파트를 지나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전환이 기존에 우리가 시도하지 못했거나 제한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확장 시켜주는 중요한 기재 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식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축으로서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현재 대부분 소액 다건의 제작지원사업으로만 진행된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기술 인력에 대한 인건비 쪽으로 또는 시설장비 쪽으로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좀 더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이 일종의 실험의 해였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공간, 시설, 인력, 장비를 영세한 예술단체들도 충분히 편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예술분야가 기술 분야와 함께 협업을

진행할 때 양쪽 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쪽은 예술을 모르고, 다른 한쪽은 기술을 모르니까요. 따라서 예술 주도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까, 나아가 기술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관객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는 과거보다는 예술 주도적인 차원에서의 예술·기술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수익 배분이 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예술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앞서 거버넌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 시대에는 과거의 연대체와는 다른 형태의 연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느슨하게. 평소에는 각각 뿔뿔이 흩어져있는 모습이지만,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이슈별로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연대체가 조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예술인 공제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안으로 얘기되는 예술재난보험 제도나 기금에 대한 부분들, 상호부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예술인 공제회를 통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예술인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상호부조, 예술인 차원의 자체 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공공도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예술가와 예술현장에 계신 분 모두 같이 인식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류정식(Ghost LX 디렉터)

기술과 예술 사이에서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기술의 한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거나 또는 예술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앞으로는 예술과 기술 분야 간 서로 소통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예술가와 기술가가 작업할 때 서로 어떠한 언어가 다른지를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예술위 지원으로 유튜브나 줌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좋은 반응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책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 중에 거버넌스와의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 위기 관리)라고 해서 이전 상황으로의 회복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제가 예술위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이후 국제 공연장이나 갤러리 재개관 시 대응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번역하였었는데요, 주목해볼 점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공연이나 전시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스스로 돌아보고, 위험성을 저감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을 때 위험에 대한 부분을 예술가 스스로 또는 공연·전시시설에서 어떻게 저감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실 가이드라인 자체는 큰 기준을 제시할 뿐, 실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지역 내 공연장, 미술관과 어떻게 연계할지를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상황이 악화되면 그 지역 전체에 있는 문화 시설이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오히려 말씀하신 거버넌스 체계를 실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놓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즉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김대현(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 융합도 좋고, 다원 예술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것을 정책집단에서 자꾸 유도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짝 이야기했었지만, 기술 융합이든 다원 예술이든 예술 분야 사이 또는 예술과 사회 사이를 횡단하고 교차하는 부분들에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를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술계 내부에서 현장 예술인들이 담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 들고요, 또는 자꾸 사회에서 요구하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른바 생산적 복지 담론처럼 예술도 무언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따라야 하고 거기에 포섭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기술과 계속 융합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한다는 요구 차원에서 거기에 우리 문화예술 분야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거버넌스에서 협상의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점들이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의 담론화 과정, 정책화 과정에서 과연, 현장 예술인들이 실제로 담론을 도출해 냈는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유도되었는지와

같은 것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없이 정책집단 내부에서 정책적 방향에 따라 지원형식이 설계되면, 결국 그 사업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정책집단의 요구를 단순히 수용하는 형식으로 결국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다원 예술이라든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화학적 결합이 되어서 융합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낭송을 한다면 음악을 단순히 배경으로 결합한다든지 무용이나 뭔가 다른 예술장르 분야를 배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버넌스 형성 과정이 마련되어서 정책적 지원을 할 때, 이것이 정책집단이 선도하여 예술의 한 분야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담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와주었으면 한다는 게, 즉 내부에서 추동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단 새로운 지원 형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형식에서도 비평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령, 한정된 예산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월성뿐만 아니라 분명히 할당도 고려해야 하지요. 단순히 지역이니까 지역할당이 아니라 지역성 자체가 왜 필요한지, 위에서 상향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닌 현장에서 지역의 필요성을 비평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직접 수행하게 되면, 오히려 끊임없이 제기되는 심의제도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피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종 종합발언 >

○ 정윤희(미술작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라는 국가폭력과 코로나 위기, 성폭력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직격탄으로 계속 맞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역사적으로 특별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기관들이 어떻게 급진적 변화를 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되 예를 들면, 예술위의 경우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면서 일종의 기존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을 유지하되, 구멍이나 장소, 즉, 일종에 제기되고 있는 실험적인 요소들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을 주자는 생각입니다.

예술지원사업에서 당면성은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당면성은 전 인류가 위기에 처해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파일럿 사업들 시도해보지요. 그런 식의 어떤 장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색해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담론이나 이론적으로도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전 토론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효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예술계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보면, 비상상황을 위한 자금이 투자되곤 하는데요. 사실 국가 지원정책에서는 비대면, 일자리라고 하면 예산을 배정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때이지요. 실상 온라인미디어 예술 창작 지원사업을 보면, 단순 온라인 사업이 아닌 커뮤니티 예술활동을 온라인 상에 어떤 형식으로든 올리면 지원을 한다는 것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논의된 주요한 쟁점 중에 기술문제나 환경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네요. 위원회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한 아시안 정상회담에서 방시혁 씨가 한 강의내용이 있어요. ‘문화콘텐츠 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사람이 기술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결국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향유하는 것은 아티스트가 내는 메시지이고,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는 열광인데 그런 것이 잘 결합되었을 때, 기술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기술 자체를 향유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에다 투자해야 한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처럼 ‘예술이 사회와 어떻게,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려고 하느냐의 문제를 분명히 하려는 지점에서 답이 찾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사람과 어떻게 만나려고 하고, 시대와 어떻게 만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 성지수(기후정의 창작집단 콜렉티브 똥굴 대표)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내일 있을 행사를 잠깐 홍보하려고 합니다. 올해 팬데믹을 맞았는데요, 이와 동시에 연극의 해이기도 합니다. 연극인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청년연극 <콜로키움>이 내일 2시부

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공론장으로 시작된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아요. 3차례 걸쳐 거점 지역별로 6개의 공론장을 펼쳤고, 거기에서 모여진 목소리들을 기반으로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던 청년연극인들이 다 같이 모입니다.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 직접 오셔서 보실 수도 있고, ‘연극의 해’ 유튜브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맞아 줌이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전에는 만날 수 없는 청년들이 만나서 연극계의 현재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를 실현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까지 제안을 해보는 첫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류정식(Ghost LX 디렉터)

우리가 소통하는 부분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와의 소통과정이 중요한데요, ‘커뮤니케어’ 라는 라틴어 자체가 같이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대담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자체로 개인과 집단의 공동체적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공동체 안에서 상호 대화하는 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비대면 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예술가, 공연·전시장, 혹은 여러 기관들 간에 대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대현(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는 재앙이고, 재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삶, 일상에 던지는 하나의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괜찮은가’ 라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기후위기나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혐오와 적대 그리고 인간 관계. 그럼에도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이러한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지원정책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문화예술이 어떻게 인간의 소중함, 혐오와 적대를 해소할 수 있는지, 나아가 예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지금 저희도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장에 계신 많은 예술인분들, 단체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중 하나는 계속 공연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요. 길게는 5년까지도 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꼭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공연과 전시 등 예술 활동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 확실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할 것 같아요. 예술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방역조치를 취했을 때라야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구요. 벌써 2020년도 하반기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에는 꼭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있어서도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술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권용민(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

제가 구글 포토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1년 전의 ‘나’ 가 보입니다. 작년의 제가 굉장히 낯선 모습이더라고요. 일단, 밝은 모습인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다양한 시사점들이 나오던데요. 개인 연구자로서의 제 생각과, 저희 부서에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박사님들과 모여서 얘기할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다양한 토론자분들을 뵈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조사한 것에 대한 해석과 특별한 의미를 찾는 부분이 추가로 필요할 텐데요, 나아가 예술정책지원기관으로서 예술위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그 해석들과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환으로 저희 위원회와 소위원회 그리고 정책혁신부에서는 오는 12월에 공론화 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예술지원정책 관련 공론화 기회를 마련하고, 저희 연구·조사 결과도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사전 제출 토론문

목 차

1.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의 문제와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김대현_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2. 토론 주제에 대한 소고: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예술지원의 방향 등
(류정식_Ghost LX 디렉터)
3. 예술정책의 그린뉴딜을 말하다
(성지수_기후정의 창작집단 콜렉티브 텡굴 대표)
4. 코로나 19위기의 시대에 예술지원의 변화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가
(정윤희_미술작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의 문제와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김대현

(문학평론가,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코로나 19 사태가 진행된지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 과정에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정책 또한 커다란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에 입안한 지원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지원의 형식도 비대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유행하는 언택트 현상과 맞물려 향후 문화예술지원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긴급상황에서 시행된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성찰과 장기적 관점에서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의 문제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생산 및 소비 등 다양한 일상의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도 마찬가지다.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도 비대면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 덕분에 기존에 영상매체와 친하지 않던 상당수의 예술분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내역이나 창작물을 전시, 배포하고 있다. 이는 재난상황에서 본연의 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예술가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예술향유의 측면에서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접근의 용이성이 증가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를 예술창작의 전환계기로 삼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축을 이동해야 한다는 변화를 읽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그대로 수긍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다. 물론 이는 기존의 익숙한 예술 환경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인정하기 싫다는 단순한 보수적인 저항감의 발로는 아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이 일구어낸 몇몇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분야에 비대면 또는 온라인으로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현장성, 일회성, 직접성이라는 특성이 그 자체로 예술성의 핵심을 이루는 공연예술분야나 물성을 가진 책이라는 컨테이너를 통해 말-텍스트가 아닌 문자-텍스트의 속도를 본령으로 하는 문학분야가 그 한 예이다. 이처럼 예술분야를 온라인을 통해 시청각미디어로 변경하는 것은 각 예술분야가 가지는 어떤 측면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킨다.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수용하는 것을 저어하는 까닭이다. 당연히 이는 현재의 예술형식이 영원히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그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예술 자체의 내재적 변화가 동인이 되어야지 팬더믹이라는 긴급 상황에서 정책집단의 지원정책에 유도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당장의 비대면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연 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수의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예술 활동의 역량이 아닌 영상편집의 기술적 수준에 따라 평가가 된다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다보니 예술가들이 겉으로

보기에 좋은 영상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목적과 수단의 전치를 가져온다. 또한 공평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공모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적, 세대적 여건으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예술인들이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예술향유자의 측면이다. 그들은 이미 TV,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높은 기술 수준의 영상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의 단지 보여주기식의 성과를 위해 기술적으로 수준이 낮은 영상이나, 예술성의 본령을 이루는 현장성, 상호작용, 텍스트 이해의 숙고 과정이 거세된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전시, 배포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기보다 오히려 예술에 대한 실망감과 저항감을 가지게 할 가능성도 높다. 무단 복제에 대한 마땅한 제지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작권의 오남용 문제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정책은 그것이 주가 아니라 보충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 긴급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예술지원정책은 각각의 예술분야가 추구하는 예술성을 승인하고 지원과정에서 소외된 예술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긴박한 상황일수록 경쟁의 형식이 아닌 보편적인 지원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대면 프로그램이 불가피한 경우 예술가들이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비대면 프로그램 제작기구로 일원화하여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는 것과 비대면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예술 활동과 결합하고 싶은 예술가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2018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 수입이 연 1천200만원, 월 100만원을 하회하는 예술인이 전체 72.2%에 달한다. 최저생계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쓸쓸히 생을 거두는 예술인들의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 상황에서 딱히 새삼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이처럼 코로나 19사태가 아니더라도 대다수 예술인들의 삶은 언제나 위기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예술인들이 가장 바라는 지원의 형태도 일회성의 지원이 아닌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적 지원이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과 같이 예술가들이 본연의 창작활동과 함께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 예술가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이른바 ‘문화 뉴딜’이다. 지역의 공간이나 생활상을 예술가의 시각으로 기록하는 것이나, 도서관 작은 서점 등에서 장애인, 노인, 결혼이주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예술을 통한 연결점을 만드는 활동들이 그러하다. 예술 활동을 통해 기존의 형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예술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충분한 효과를 본 정책이니 만큼 이는 문화예술정책지원부서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다만 유의하여야 할 것은 그것이 예술 활동으로서의 성질을 잃고 단순한 노동으로서 용역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예술은 삶과 유리되지 않되 제도에 융합되어서도 안 된다. 예술이 제도에 포섭되는 순간 예술의 특수성은 사라지고 예술이 소지하는 특유의 활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른바 문화 뉴딜을 통해 자리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

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예술의 특수성을 이해시키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개입하여 중재를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예술인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다. 예술인 고용보험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의 우려대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들은 턱없이 미흡한 현실이다.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보장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예술위나 문화예술지원 유관기관에서 지원의 형식을 직접고용의 형식을 취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예술 활동에 대한 공정보상체계 마련이다. 그 동안 예술은 근대 미학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인 예술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예술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구성하는 논의를 (무)의식적으로 회피해 왔다. 이러한 미학적 태도는 이를 오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경제적인 것으로 전환하여 그 결과물마저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각 예술분야 별로 예술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기준이 내재된 표준계약서나 저작권 법 등 예술활동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까닭이다. 동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정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 하다. 다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는 독립예술가나 단체, 동인지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이 서로의 재료, 노하우, 공간,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예술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원예술, 기술융합예술과 같이 정책집단의 유도에 의한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닌 예술인들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예술인 스스로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 그 목적이 있다.

2. 토론 주제에 대한 소고: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예술지원의 방향 등

류정식
(Ghost LX 디렉터)

소주제 1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예술지원의 방향

기술 스태프에 대한 생존과 지원사업의 필요성

해외의 공연 및 예술가들은 각자의 국가의 상황에 따라 생계 지원을 받기도 하고 처절한 생존을 위해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 있다. 특히 기술을 분야에 있는 예술가들의 경우 생존의 문제와 맞이고 있으며 최근 Red Alert이라는 캠페인을 국제단위로 알리고 있으면서 공연산업이 얼마나 위협에 처해 있는지 강조하고 있다. 창작 관여하는 창작자의 경우, 격리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창작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으나 이를 도와주는 기술 분야 스태프들의 경우는 더 많은 타격이 있다. 이러한 기술 스태프의 인프라가 무너지면 예술창작을 받치고 있는 중추가 무너질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공공지원을 받는 공연장의 무대 스태프도 있지만 많은 프리랜서 예술 관련 기술 스태프가 있다는 것과 소규모의 무대 공방과 제작소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들이 무너지면, 장기적인 공연 및 예술제작의 타격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술 스태프들이 이러한 기간 동안 기술과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함을 갖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재교육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받는 기간의 일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이미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청을 통해 일부 지원받고 있으므로, 교육과 교육을 받는 기간의 동안의 재정 지원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기술 인력의 인프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연장 재개장에 대한 국제 가이드 라인 사례 : 예술위원회

예술위원회의 예술인력개발원과 함께 COVID-19 팬데믹 상황의 스태프와 기획자를 위한 예술 이벤트 재개장 국제 가이드 (원제 : The Event Safety Alliance Reopening Guide For Event Professionals During the COVID-19 Pandemic)의 역자로서 번역 작업을 진행하였다. 국제적 공연 안전 민간협회인 Event Safety Alliance(이하 ESA)가 2020년 5월 11일 무료로 발행하게 되었고, 토론자의 제안을 통해 한국어 번역본이 예술위원회를 통해 발행되었다. 국내의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국내 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토론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번역하면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국내 예술가 및 예술행사 기획자들이 해외 예술가 및 스태프와 공동 프로젝트를 계획 및 실행하는 데 참고하고, 예술 프로젝트 공간에서 국내외 스태프나 기획자가 함께 보건 위험성을 저감 하여 지속 가능한 우리의 소중한 예술 프로젝트를 지키는데 번역의 목적이 있으며, 기존의 예술위원회와 토론자의 공동관심사로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사되었고 넓은 범위의 공연 보건 혹은

공연 안전에 대한 공유와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험을 저감하여 지속 가능한 예술창작 환경을 유지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영국, 미국을 비롯하여 협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보건관리 규정을 관리하고, 공연외 산업에서 자발적으로 보건의 위험성을 저감하여 여러 산업 중에서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산업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공항, 항공, 여객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하여 예술 공동체로서 연대하여 공통된 수준의 보건 기준을 스스로 작성하고 이를 지켜 나감으로써 대외적으로 예술영역이 높은 수준으로 보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소주제 2, 3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지원의 원칙과 방향 수립에 대한 제언 : 예술가의 혁신 수용 패턴을 반영하는 지원사업 디자인 방향

토론자의 비대면 기술의 경험

토론자는 2012년 뉴욕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면서부터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국적 프로젝트와 국제도시들 지사에 있는 전문가들이 협력이 필요한 작업이 많았고, 같은 사무실에 있더라도 구성원이 서로 다른 생활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상의 공동 창작과정과 공간을 확보하고 시간과 공간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미국의 경우 다른 시간과 장소라는 기본적인 다른 배경이 있기에 이러한 작업이 흔히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공연예술 비대면의 콘텐츠나 플랫폼들이 미국을 우선으로 출시되었을 것으로도 짐작된다. 한국에 돌아와서 스튜디오 작업을 시작했지만 4년 동안 비대면으로 작업을 해 본 경우는 거의 손에 꼽을 것 같다. 대면 문화 강한 협업문화나 단체문화 등이 아마도 이러한 틈을 비집고 갈 일은 없었을 것이다. 토론자도 범유행 이후로 이렇게 빠른 수요가 생겨날지 예상하지 못했으나, 또한 건축 영역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플랫폼이 예술영역으로 확장된 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다. 팬데믹 이전에도 비대면 예술창작 과정이나 제작의 필요성은 있었기 때문에 지속해서 소개되고 조금씩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비대면의 플랫폼 재조명이 팬데믹 이후에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경험하였고, 좋으면 다시 사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비대면 사용에 대한 장기적인 생각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혁신확산수용 모델을 적용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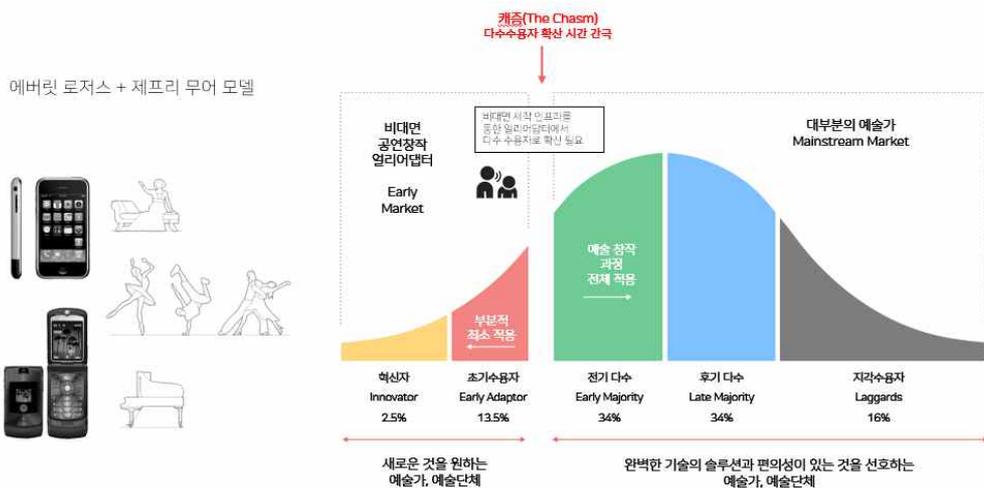
예술에 관련되어 혁신확산 수용모델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2019년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가의 창작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책임연구원으로 진행하게 되면서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예술가의 입장을 고려해 보기 위한 방향에서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의뢰로 영국예술위원회 및 다른 예술영역의 혁신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도 같은 모델로 적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 시간대에 다른 나라에서도 특정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다.

혁신확산수용 모델을 사용한 것은 연구를 시작하면서 기존 연구들이 공급자 중심의 탑-다운 방식에서 연구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에서 접근하게 되었다. 혁신모델에서는 새로운 플랫폼 혹은 기술혁신, 그리고 이러한 혁신을 제공하려는 자와 이를 수용하는 예술가들이 있으며 예술가들도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작한다. 어떠한 예술가는 새로운 기술혁신이나 플랫폼에 열광하여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으나 어떠한 예술가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플랫폼을 포함하는 정책은 이 모든 수용자의 그룹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 모델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관행,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체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특정 채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체계이고, 에버렛 로저스(Everett Rogers)가 이러한 이론의 초기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혁신확산모델은 공급자 중심의 모형을 탈피한다. 수용자의 혁신을 대하는 성향을 인지하고 그룹별로 대응하여 이러한 혁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 어떤 소비자는 아이폰 12가 출시되는 날을 기다릴 것이고 어떠한 소비자는 오히려 추가되는 할인되는 아이폰11을 구매할 것이다. 다른 소비자는 이러한 새로운 혁신에 매력을 느끼지 않고 기존의 제품을 고수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소비자 혹은 수용자들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 부분이 이번 정책에 관한 내용에 시사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한다. 예술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일부 그림을 첨부하였다. 이를 우리 예술지원사업에 적용해 본다면 얼리어답터 예술그룹은 이러한 비대면 플랫폼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많은 대다수 예술가는 비대면 플랫폼을 수용하기보다는 얼리어답터들의 추세를 보고 선택하거나 (전기 다수) 혹은 지각 수용자 그룹의 경우처럼 가장 늦은 선택 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이론이 그렇듯이 이러한 모델이 우리의 모든 정책사업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으나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겪는 비대면 창작 플랫폼이나 기술들에 대한 우리의 지원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고 있다.



[그림] 토론자가 생각하는 비대면 창작 플랫폼의 기술수용 모델

비대면 창작 혁신과정의 캐즘은 어디 있는가?

앞의 그림에서 보면 초기 수용자와 전기 다수 사이에 캐즘¹⁾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예술에서 비대면이 같은 비중은 예술창작 장르마다 다를 것이다. 시각예술보다는 공연예술이 더 빠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캐즘 사이에서 혁신 플랫폼은 대다수의 선택을 받기도 할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 대다수의 혁신을 받지 못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공연예술의 경우 어떠한 부분에서는 캐즘을 넘어 대다수의 창작에서 선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시각예술의 경우 아마도 현재 일부 적용하는 예술가와 전기 다수의 예술가 사이에서 캐즘의 틈의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는 토론자의 견해를 드러본다. 전기 다수의 예술가는 새로운 변화를 지켜보고 있으나 토론자를 포함한 우리 예술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확신이 없고 혼란할 수 있다. 이러한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뉴노멀이 아닌 노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도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예술창작과정은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비대면 플랫폼의 캐즘의 상황과 맞물려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기회일지, 밖으로 벗어나야 하는 소용돌이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벗어나야 하는 소용돌이의 궤도인지 혹은 지속하는 새로운 창작모델인지 고민하는 예술가에게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Blame it on my juice. 예술가는 비대면에 대한 어떠한 매력을 느끼는가?

Blame it on my juice. Lizzo의 노래의 한 가사이다. 예술가들에게 비대면 창작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우리는 일부 예술가의 관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창작 플랫폼이 어떠한 매력이 될지를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험해 보고 사실 필요가 없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과장을 할 필요도 없지만, 기존의 가지고 있는 창작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다면 팬데믹 이후에도 예술가들이 새로운 창작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일반적인 5가지 확산수용의 특징을 예술가 개인을 입장에서 기준으로 다시 해석해 보았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지만 새로운 혁신정책을 예술계에서 적용하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대상이 되는 예술가들에게 우리 계획하는 정책의 매력 포인트가 될지 생각하는 한 부분이 되었으면 한다.

<표> 5가지 확산모형의 특징에 따른 예술가 개인으로서 혁신모델

혁신확산모형 특징	예술가(사용자)의 제작 측면에서 혁신 플랫폼 선택의 배경
상대적 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이 이전의 것(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낫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 -> ▪ 예술가가 혁신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창작의 어려움의 강도를 줄여주어 창의적인 부분에 더 몰두할 수 있게 되는가?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이 기존의 가치, 과거 경험, 잠재적 채택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의미 -> ▪ 예술가는 새로운 혁신을 통해 제작과정에서 유사한 창작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기존보다 예술가가 이러한 과정을 이를 친밀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복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정도를 의미 -> ▪ 예술가의 제작과정에서 새로운 혁신과정이 복잡함-단순함 연속 선상에 어디가에 있는가?

1) 제프리 무어(Geoffrey Moore)는 <캐즘 크로싱(Crossing the Chasm, 1991)>에서 “새로운 기술 플랫폼의 경우 얼리어답터와 초기 다수 수용자 간의 확산에 캐즘이라고 하는 일정한 시간적 틈이 존재하고, 이 캐즘을 지나야 다수로의 확산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역설하기도 하였다.

혁신확산모형 특징	예술가(사용자)의 제작 측면에서 혁신 플랫폼 선택의 배경
시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이 잠재적 채택자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험 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 예술가가 새로운 플랫폼을 시험해 볼 수 있는가? 시험해 볼 수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가? 도움을 구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가? ▪ 예술가 개인으로서 시험해볼 수 있는 혁신은 그렇지 않은 혁신보다 제작과정에서 더 빨리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관찰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채택의 결과가 다른(관객, 언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정도를 의미 ▪ 소프트웨어 측면(빅데이터 활용)은 관찰 가능성이 작으며 하드웨어(로봇제어 등)적인 혁신은 관찰 가능성이 큼 ▪ 지원정책은 소프트웨어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가? ▪ 선택한다면 관객/관중/언론이 인지한다는 것이 예술가에게 중요한가?

결론: 예술가와의 소통되는 혁신사업 정책을 위한 제언

최근의 혁신과 관계된 예술지원사업 정책의 설계에서 조명되는 부분은 소통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책보다 예술가가 느끼는 온도 차라는 표현 등이 여기에 관계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대상과의 소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소통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예술과 혁신의 영역에서 공존을 인정하고 탐색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을까?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어원을 보면, 원래 라틴어의 커뮤니케어(communicāre)에서 유래한 것으로 ‘같이 이야기하다.’, ‘협의하다’, ‘대담하다’란 뜻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의 정보 전환, 개인을 포함한 집단 간의 의미 전달이라고 정의되기도 하고, “일반적인 상징을 통한 정보나 의사의 전달”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즉, 의사나 정보를 가진 자가 그것을 받아들여려는 타인에게 전달하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이 해석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상징적 과정이기도 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개인적인 메시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면에서 앞서 언급되었던 혁신에 대한 다양한 예술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존’이라는 차원에서 각 그룹을 어떻게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서로 상징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상징은 기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으며 배타적인 이 않은 파괴적이지 않은 예술가의 입장을 공유 일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통은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최근 예술위원회의 아트앤티크 프로그램에서 모임 날 프로그램의 사회자를 자발적으로 맡으면서, 이러한 고민을 적용하고 스스로 이러한 답을 찾고 있다. 최근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 및 키네틱 아티스트인 정우원 작가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예술가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밋업데이 이벤트에서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는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중심으로 예술가의 입장에서 시도하게 되었던 배경과 고민들을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감하게 실시간으로 모든 질문을 받고 실시간으로 진솔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혁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예술가가 한 걸음 새로운 창작 플랫폼에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하였던 정책 계획을 위한 소통의 한 부분이 아닐까 제안해 본다.

3. 예술정책의 그린뉴딜을 말하다 : 팬데믹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 돌파를 위한 예술지원정책을 제안하며

성지수

(기후정의 창작집단 콜렉티브 똥굴 대표)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예술지원의 방향

2020년 대한민국은 팬데믹 뿐 아니라 역사상 최악의 장마, 홍수, 폭염을 겪었으며, 기상학자들은 올 겨울 최악의 혹한마저 예고하고 있다. 기존에도 발생하곤 했던 자연 현상이 전지구적 재난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한 현상들이 강도나 빈도 등 모든 차원에서 인류의 과학적 예측가능성과 기술적 대응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강이나 바다가 범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시가 발전한 지역이 물에 잠기거나, 백신 개발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창궐하여 전세계를 락다운시키는 등의 사태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보수적인 과학자들조차 이제는 이 재난의 원인을 ‘인류 문명을 꽃 피워온 기후(홀로세)의 변화’로 꼽는다. 명실상부 기후위기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단일 감염병에 대한 단일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각은 어느 면으로 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많은 기상학자들이 수억만 년 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장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 등 전세계의 기후행동 활동가들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대에 산다는 것은 일상화된 재난 속에 산다는 것이며,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예측할 수 없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술지원의 방향은 일상화 될 재난 속에서 예술의 가치를 무엇으로 둘 것인가 하는 큰 질문 아래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1) 재난을 맞이한,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불쌍한 예술인 구제가 아닌 공적 가치를 위한 공적 자원 투입 개념을 기반으로 한 예술지원 시스템 마련과 2) 단일한 상품으로서의 예술 작품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원사업 시스템에 대한 재고와, 3) 예술지원 체계 내의 생태적 관점 도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존 방식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1) 공적 가치를 위한 공적 자원 투입 개념을 기반으로 한 예술지원 시스템 마련

: 우리나라의 예술지원정책은 경제적 논리를 기반으로 짜여있다. 이 때문에 특히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은 여러 면에서 모순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기 때문이다. (지원사업에서 일정한 자부담 비율을 지정하는 것, 취약하다고 인정된 청년&신진 예술가만을 따로 호명하는 것 등)

공적 지원정책이 시장경제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돌아가는 것은 비단 예술계만의 문제

는 아니다. 한국사회에는 경제적 척도 이외에 가치를 논할 수 있는 척도가 부재하다. 이는 근대 이후의 국가 정책이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을 꿈꾸며 진보와 성취라는 이름으로 타자화와 착취를 일삼아 온 인간의 행동양식”을 담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며, 바로 이것이 기후위기라는 재난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근본적인 지점이다. 재난 사회가 필연적으로 자원의 절대적 부족과 누가 먼저 지원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재배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논리 이외에 예술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부재하다는 것은 예술인을 노동자가 아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정도로 격하시켜 성폭력, 인권 착취 등의 수많은 문제를 비가시화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후 재난 상황에서의 예술인 지원에 대한 설득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코로나19때보다 훨씬 많은 기후 난민이 발생했을 때 한국사회는 ‘노동할 여건이 되지만 노동을 택하지 않은 이들, 돈을 벌 수 있지만 굳이 선택하지 않은 이들’로서의 예술인에게까지 지원을 계속할 것인가?

지금 당장 예술지원정책의 변화만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취약계층으로서의 예술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현재의 방향성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취약한 자로서의 청년 및 신진 예술인에 대한 호명 대신 관습성을 타파하고 기후 재난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예술성을 실험할 수 있는 예술 작업을 호명해야 하며, 현장 전문가 섭외 등에 있어서도 수적 형평성만을 고려한 성별 및 지역 안배 대신 기후정의 실현을 고려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2) 단일한 상품으로서의 예술 작품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원사업 시스템에 대한 재고

: 생산 및 유통되어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는 예술창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특히 공적 지원을 통해 향유자를 만나는 예술 작업 대부분은 이미 ‘시장 형성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조를 통해 미적 쾌를 불러일으키는, 근대성을 기반으로 한 단일 예술작품-상품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되어야 한다.

대신 예술로 무엇을 할 것인가, 즉 향유자들에게 어떤 예술적 경험을 줄 것이며 이를 통해 공적 가치 확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도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작업들, 예컨대 돌봄이나 공동체 교육을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들에 대한 지원 폭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는 근대적으로 구성된 예술성을 재고하는 작업인 동시에 예술지원사업에서 소위 주변으로 밀려난 것들에 대한 재조명 및 재배치로 실현될 것이다. 현재 과정 지원이라 여겨지는 소규모 지원사업의 기간과 지원 액수를 늘리고, 의무 교육 기관과의 협업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지역 연계 사업에서는 예술단체와 지역 간의 관계 형성 기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3) 예술지원 체계 내의 생태적 관점 도입

: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술지원사업에서도 생태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런데 단순히 생태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업을 우선 선정하는 것은 아트 그린워싱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각 작업별 탄소 배출량을 산출 및 추적하여 장기적으로는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제로 웨이스트나 비건 지향을 창작 과정에서 실천하는 창작 활동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환경변화와 적응을 위한 제안

팬데믹을 계기로 예술지원정책에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이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뚜렷한 대안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이 토론문이 제안하는 바는 예술정책에서의 그린뉴딜 도입이다. 이미 수많은 국가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경제/군사/환경적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는 환경 정책이 아니다. 그린뉴딜은 기후재난을 초래한 탄소배출을 혁신적이면서도 정의롭게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정책이다.

현재 쏟아지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기술 융복합 예술 장르에 대한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환경에 해를 가하지 않을 것만 같지만, 이는 기술송배에 대한 환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활동 역시 다량의 탄소 배출을 동반한다. 가상현실은 필연적으로 현실 공간 어딘가에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한한 공간이 아니다. 데이터센터는 지어지면서도 환경을 파괴하지만, 디지털 정보를 저장했다가 운송하기 위해, 그리고 시스템 유지를 위한 냉방 시스템 가동을 위해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 프랑스 환경단체 '시프트 프로젝트'에 의하면 온라인 영상을 30분 재생할 때 1.6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는 경유차로 6.3km 운전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동일하다. 인터넷 검색 한 번만으로도 초당 20mg의 탄소가 배출된다.

2050년 인류 거주불능 지구 사태를 막기 위한 사회 전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7년 정도 남아있다.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전혀 없어 명실상부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된 대한민국에서 예술정책에서의 그린뉴딜을 말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위해 예술이, 예술가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예술은 기후 재난으로 훨씬 더 척박해질 공동체에 예술적 소통 및 관계 맺기를 통해 배제와 차별 대신 유대감과 공감을 확산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토록 하는 예술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이유다.

4. 코로나 19위기의 시대에 예술지원의 변화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가

정윤희

(미술작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예술지원의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과 전략제언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공론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관주도로 정책을 세우고 현장이 의견을 보태는 형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토양이 되었던 예술행정 관료제 시스템의 일방적·수직적 구조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도 고착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긴급하기 때문에 혹은 상급기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어서 일방적으로 시행한 사안들이 결국 예술인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성찰 속에서 예술지원의 패러다임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이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문화예술정책 합의기구로서 예술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합의의 의사결정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낱선 비판보다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함이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위기관리 지원의 구체적 내용 보다는 위기를 가중시키는 보다 필연적이며 본질적인 몇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짚고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할 예술지원의 방향성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코로나 긴급 지원 정책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설계하였나?

코로나19로 전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 앞에서 “우리의 곤란을 전 세계인과 공유하게 되어 서 외롭지 않다” 는 동료예술가의 자조 섞인 말처럼, 예술가들에게는 지금의 위기가 갑작스럽게 다가오지 않는다. 예술가의 삶은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와 일방적인 통제와 관리 앞에서 예술가 개인이 버티는 게 능사였다. 이는 이상적인 예술인의 삶이 결핍에서 기인한다는 사회 지배적 정체성이 예술가 스스로에게도 내면화 되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코로나19 문화예술계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시정부에 제안문을 보내고,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예술인들의 제안_코로나19 문화예술계 긴급지원, 정책 진단> 토론회를 어렵게 열었던 적이 있다. 그 이유는 공공 기관이 피해 사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결과를 현장 예술계와 공유하고 의견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하는 절차 없이 기관 담당자가 세운 지원 정책에 예술인들이 웃고 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수많은 지원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문화예술인들의 특수한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곤란에 처한 예술가들은 막막할 뿐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나의 가난을 증명하고 예술인임을 이중 증명해야 하는 구조,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구조다. ‘긴급지원’ 이라는 당면과제로 체계 없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지원 사업은 결국 사업에 능한 예술가/단체가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제외된 예술가 개인은 좌절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실력 있는 예술가로 자기 존재 증명을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했다. **선별적 지원**은 존립의 위기 앞에 선 예술가들을 제도에 길들이며

적합하지 않은 존재는 탈각시켜 궁극적으로 예술이 가능태로 존재할 수 있는 새롭고 실험적인 속성들, 다양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법 제도 장치가 미비하며 무엇보다 국가주도 문화정책의 폐해, 문화정책전달체계의 위계화와 불안정하고 퇴행적인 협치 구조가 여전히 그대로임을 확인시켜주었다. 불평등한 권력구조와 예술지원 시스템에 귀착된 문화예술계의 문제는 전면적이며, 현재의 개방성과 참여구조의 수준으로 모색하는 해결방안으로는 어렵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가?

문예위의 설립취지이자 시대적 과제인 ‘예술인의 의회’를 실제화하기 위해서는 문체부로부터의 독립은 필연적이다. 블랙리스트 작동 체계와 문예위의 한계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및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문예위는 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 물론 현재의 조직이 문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더라도 문예위가 진정으로 예술인 정책협의 기구로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기존의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중심 체제에서 예술인의_의회²⁾를 실제화하기 위한 운영 조직상의 예술인에 대한 개방성과 공론화 프로세스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예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지원 정책 구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은 가령 3년차에 접어든 현장소통소위원회의 기본 원리를 문예위의 의사결정구조에 반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들 수 있겠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고 예술 현장의 지지와 동의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즉 국가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독립성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레질리언스 개념의 위기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예술지원 기관이 코로나 19 감염 위기에 맞서 도전하고 자정하며 성장해가는 역동적 과정으로서 예술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다. 예술현장, 예술기관과 위기 지원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위기지원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교한 노력은 이번 토론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 공유의 소극적 수준을 넘어 예술현장 중심의 공론장을 통해 의견이 모아지고 이를 통해 현장 주도로 긴급 예술지원을 모색하는 자리로 설계하는 과정으로 시작했다면 아쉬움이 있다. 지식공유의 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은 SNS 공론장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주체들과 연결하며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위기지원은 문예위의 정책-지원 전달체계의 수행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민간 합의제 정책기구에서 의결 권한이 위원 또는 위원회에게 제한되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현장의 요구들이 반영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문예위가 직면한 당면 과제뿐만 아니라 레질리언스 위기지원 정책의 본질이다.

2) 국가차원의 위상이 있는 ‘예술인 의회’로 전환한다면 관료 조직과의 견제-균형을 이루면서 구조적으로나마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르고 혁신 비전에 근거한 문예위의 조직 구성과 역할, 기능, 정책 결정 구조, 문화예술의 가치 정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정비 등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 수준의 개방성과 의사결정-참여구조로는 어렵다.

예술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제안

아르코 혁신TF 보고와 , 문예위 위원선임절차 개선 공론장, 현장소통소위원회 SNS그룹에서는 문예위 전반에 걸친 문제 관련 대안들이 제시 되었다. 장르별 지원을 포함하여 의제, 주체별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과 확장성과 지원제도 심의평가 제도개선,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위기 지원,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권리보장법등의 법, 제도 쟁점과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성평등, 기후위기, 표현의 자유 등 예술계의 현안을 반영한 지원제도 수립과 불평등한 권력 분산을 위한 예술인 참여 예산 등이 제안 되었다. 필자는 이를 포함하여 예술노동과 공정보상 체계 제도화/ 문화정책 수립에 예술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창작지원과 향유의 선순환체계를 고려한 창작 지원 사업 체계 설계/ 주체(대상), 의제, 장르 등의 분야를 교차·확장한 정책과 지원 사업, 연구/ 지역문화예술생태계 이슈관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방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예술계인식 제고 방안들을 제안했다.

‘장소’ 를 만들자

문예위의 개혁은 블랙리스트 국가 폭력을 책임지는 특정 국면에서 혁명처럼 급진적으로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예위가 당초 설립되었을 때의 취지의 예술인 의회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과연 현재와 같은 국가주도의 정책 하에 각종 문화예술 지원이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을 인정하며 여기서 발현되는 창조적 역량을 사회적 공공적 자원으로 공유하고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예술가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보면, 예산대비 투입 산출 결과의 한정적인 지원구조에서 ‘예술’은 문화예술행정 관료시스템의 도구적 관점에 의해서만 사회적 존재를 획득한다.

한국 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전면적이며 급진적으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어렵다. 특수한 국면을 시작점으로 잡고 체질 개선을 목표로 점진적이며 전면적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은 견고한 기존 사업의 틀에서 구멍 즉 ‘장소’ 를 만들어 변화가 요구되는 지점들을 수렴하고 구현해보는 것이다.

급진적	->	점진적
-	->	의제중심의 소위원회/ ‘장소’만들기
국소적	->	전면적
현장소통소위 당면과제TF	->	예술인의 의회로

예술지원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예술지원이 재구조화되는 과정 속에서 예술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역으로서의 ‘장소’ 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장소’ 는 이슈를 설정하면 핵심-주변의 관계적 동학을 비교적 잘 포착할 수 있는 반면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규모의 구조들과 문예위 외부의 예술가(주변부의 행위자)가 어떻게 중첩되고 상호 규정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가령 의제중심의 열린 구조의 지원 사업 또는 평등한 문화 자치적 관점에서 예술인 참여예산을 시도하고 이를 분석하고 연구하며 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예술지원의 패러다임과 전반적인 조직의 변화를 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지원 정책은 상호협력으로 구성된 문화정책이라는 본질적 속성을 실현하는데서 가능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질적인 예술현장 중심의 합의제 기구로 전환하는 과정들은 ‘의제중심의 협치’에 참여했던 다양한 주체들의 경험으로 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문화예술계 이해관계자간에 상호의존하며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경험이 형성되면 동질성³⁾에 근거한 기계적 연대를 넘어 새로운 결속력으로서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성하는 집합의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주체로서 현장 예술인들의 적극적 개입이 중요하다. 구체적 지원방안들은 오늘의 자리를 확대하여 예술위를 비롯한 문화예술지원기관에서 실시한 각종 코로나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 공유하고 코로나 지원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예술현장과 여는 공론장에서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3) 전통적인 사회구성 원리와 동질성에 근거한 기계적 연대. 기계적 연대는 혈연 지역 학연 종교 등의 문화의 동질성에 기초하는데 지역사회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담합의 원인이기도 하다. 위원회의 고질적인 문제의 근원은 기계적 연대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세력화의 영향력에서 찾을 수 있다..